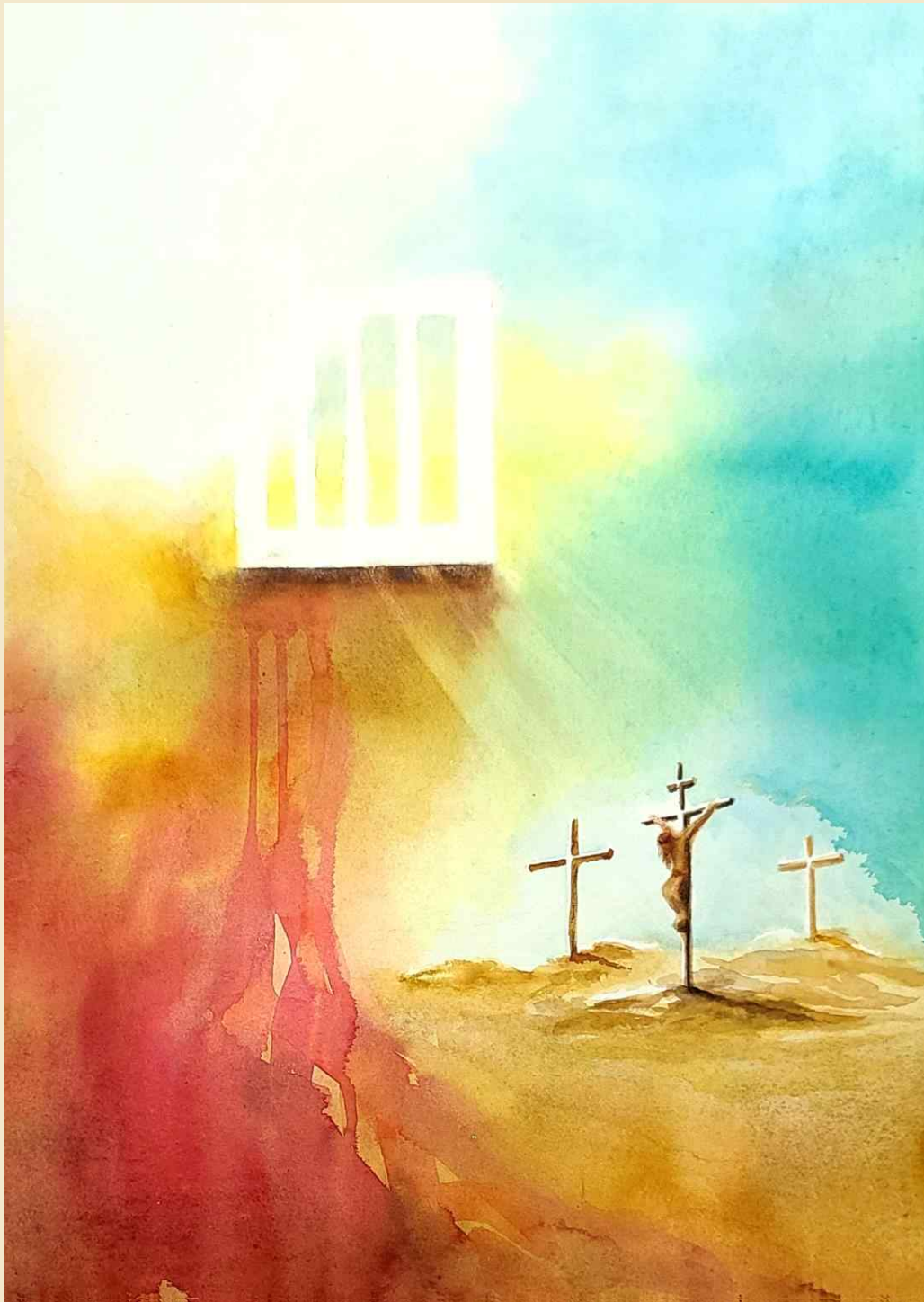


2022 **09** Vol. 387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귀원(歸院)



며칠 떠나 있으면 그립고
다시 오면 이방인처럼 낯설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대화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다시 늘 하던대로
새벽에 기상하고 가대에서
성무일도를 바친다
아침 묵상기도를 한 시간 하고 미사를 한다.
낮기도와 독서기도,
점심 후에 성체조배를 한다
처음인 듯 새롭다

해가 기울어
저녁 묵상을 하고 저녁기도를 한다
마지막 끝기도를 바친다
이렇게 하루가 또 익숙해지니
성당과 수도원과 산과 하늘이 모두 내 것
마음 안이 풍요로워졌다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귀원(歸院)
- 03 차례
- 04 총장 서한/ 미구엘 마르케스 칼레 신부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회원들께
- 09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옮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9)
- 14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8)
- 18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테레사의 자서전 해설(40)
- 22 예수의 성녀 테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얼씨구 절씨구
- 24 선교/ 권상균(아우구스티노) 신부
신주 공동체와 한 지붕 두 가족
- 25 수방에서/ 김광서(토마스) 신부
- 26 성소/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 27 용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주님의 기도(3)
- 28 가르멜뜨락/ 안병희(젼마)
어사화 쓴 앞집
- 28 예수 성심의 성녀 테레사 마르가리타
- 29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 30 순례기/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4)
- 34 공동체 이야기/ 인천 성 요셉 공동체
수도원의 종소리를 들으며
- 39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박지현(요셉피나)
리오마조레, 그 끝엔…….
- 42 가르멜뜨락/ 박계용(도미니카)
친서
- 44 가르멜뜨락/ 김순상(베로니카)
우리 서로 꽃이 되고 기쁨이 되리
- 46 가르멜뜨락/ 반숙자(벨라뎃다)
속단의 함정
- 48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42)
2022년 11월 영적나눔
- 50 재속회 소식
- 51 수도회 소식
- 52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회
봉쇄 수녀원 재건축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 53 신간안내/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외 1인 옮김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 해설서 제4권
- 53 신간안내/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말씀과 숨
- 54 신간안내/ 이영재(마리스텔라)
유럽 중세교회의 향연 1,2
- 55 첫 서원을 축하드립니다
- 56 그림/ 신호준(마리오) 신부
결실

표지그림

순교의 영광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7 (2022 9.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 총장 서한 *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회원들께

한 가족/ 함께 걸어가면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총회를 마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관상가가 되어 일상의 고달픔 속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가르멜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7월을 보내고, 그 끝에 이르러 성녀 마르타의 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득찬 기쁨으로 저의 가르멜의 형제 자매인 여러분께 이 편지를 씁니다. 재속 가르멜회의 역사이면서 더불어 데레사적 가르멜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인 이 순간을 감사드리고 확신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축복과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감사의 말씀

제가 총장으로 선출된 후 재속 가르멜 회원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첫 느낌은 존경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 지역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관구 회의에 갈 때마다 여러분의 기쁨과 열의에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저에게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마음을 채운 열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양성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걸어가고자 하며, 또한 단위 공동체와 관구의 일원, 그리고 한 수도회로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은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항상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반해 달라, 격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재속회 회원의 숫자 뿐 아니라 조직적인 협동과 협력, 생동감과 공동 합의성 면에서도 재속회가 발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회헌의 풍요로움과 서로 다른 지역 및 관구의 회칙을 통한 많은 노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룩하신 성과에 축하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여러분이 법의 문구에 매이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법적 의미의 사소한 차이나 지나치게 세세한 해석을 두고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법은 필요합니다. 법은 공동체와 우리를 보호하면서 독단이나 즉흥성을 막아주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조작을 방지해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표현하는 생활의 지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레사적 순명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순명은 모든 이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과 그리고 장상들과 화합하여 하느님의 계획을 잘 받아들이고 순명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구나 격려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순명해야 하고 지위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녀 데레사께서 완덕의 길 서문에서 한탄하신 것처럼 중요치도 않은 일을 논의하

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재속 가르멜회 회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적 단순함이 주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과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가식적이거나 복잡한 지식이 아닌 솔직함과 투명성을 통한 ‘복음적 도약’과 더불어 참된 공동체 삶과 진정한 기도 생활 그리고 깊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삶의 도전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테레사적 대담성’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는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새로운 지원자가 오면 그들은 우리들의 경탄할만한 조직이나 훌륭한 회헌에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경쟁이나 의혹이 없는지, 직책을 맡은 이들이 회원 모두를 위해 잘 봉사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또한 공동체 내에서 막내 그룹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잘 피력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즉, 주위의 어려운 이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한 가족

먼저 몇 가지 예를 여러분과 나누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예는 간단한 것이지만,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재속회원들과 수녀님들 수사님들)에게 주어진 소속감과 공동책임의 의미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탈리아에 온 이후로 저는 몬테 콤파트리 수도원(Monte Compatri monastery)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로라와 로렌조라는 활기찬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들이 있는데, 모자(母子) 관계인 두 사람은 영성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마실리오 신부와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손님을 접대하

는 일을 담당하고 사무적인 일과 직원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로라는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활성화와 사목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사들과 재속 회원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렌조의 외할아버지 지안프랑코 역시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항상 수도원 문지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곳 몬테 콤파트리에 있는 가르멜의 묘지에 잠드심으로써 돌아가신 후에도 가르멜 수도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수도회의 몇몇 관구에서 분야와 사도직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자 수도회가 스페인의 코르도바 은둔소(Las Ermitas di Co'rdoba)를 떠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악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르멜회가 있기 전) 고대 은수자의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 교구에서는 다른 관상 공동체에 넘기라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곳이 우리 수도회의 상징적인 곳이라서 계속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는데, 그것은 가르멜 재속회 회원들과 협력하는 계획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수도회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수 있으며, 우리를 규정하는 관상적이고 사도적인 공동의 성소를 표현하고, 가르멜 수녀님들과의 친교 안에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계획들(initiatives)을 독려합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회헌 1조, 2조, 37조, 38조에서 재속회원들, 가르멜 수녀들, 가르멜 수사들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똑같은 영적 자산을 가지**

고, 성덕으로 똑같이 불림을 받았으며(에페 1,4; 1 베드로 1,15 참조) 똑같은 사도직의 사명을 받은 하나의 가족이다.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자신들의 세속성이 지니는 고유한 풍요로움으로 본회에 기여한다(회헌 1조).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은) 수도회의 일부를 이루어 수도회 카리스마와 영성에 참여한다(회헌 2조 참조). "재속 맨발 가르멜회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다(37조)." "지역적 차원이든 관구 차원이든, 즉 어떠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든지 간에 본회가 사도직적 봉사를 계획하거나 교회 또는 사회적인 상황에 대하여 연구할 때에 재속 맨발 가르멜회 대표들을 참석시킬 것이다(38조)."

이렇듯 여러분의 회헌에 제시된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다양한 수준의 창조적 협력에 도전하도록 장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위대한 데레사적 가족이 같은 성소를 지니고 있다는 친교에서 시작합니다. 각자 고유한 생활 신분에 따라서, 받은 은사를 나누고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소명을 잘 인식하고 충실히 살 때, 우리는 한 지체로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성과 카리스마와 신분에 있어서 풍요로움과 충만함은 누가 더 중요한지에 상관없이 재속 회원, 수녀들, 수사들 모두에게 온전한 은총입니다.** 우리를 하나의 수도회로 묶어주는 이 진리는 '특권' 이나 쓸데없는 '자만' 이 아니라 오히려 성소의 참된 의미에 따라서 우리를 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공동체와 함께 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과 성령의 숨결에 가까이 승복하면서 진리를 함께 찾아 나가게 합니다.

맨발 가르멜 재속회의 회헌 38조는 매우

아름다운 것 하나를 말해줍니다. "데레사적 가르멜의 남녀 수도자는 재속 맨발 가르멜의 평신도 공동체를 자신들의 봉헌생활의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한다. 남녀 수도자는 가르멜 평신도와 함께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가르멜 평신도로부터 시대적 징표를 인지하고자 한다." 우리들 역시 이 말을 우리 수도회 전체, 즉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상호 학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면서, 가르멜인이 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의 식별은 오늘날 모든 가르멜인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팎의 현실을 인식하고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걸어갑니다. 현시대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우리 시대의 상처받은 이의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팬데믹 중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새로운 생명의 온상들 안에서도 진정한 기도는 하느님을 관상하게 합니다.

공동합의성(시노달리타스)과 공동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자 하는 교회적 과정 한가운데 있으며, 가르멜 역시 공동 합의성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힘이 드는 만큼 아름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맨발 가르멜 재속회의 많은 공동체의 염려스런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저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을 첫째로' 두는 것, 부르심에서 오는 은총, 카리스마에 대한 데레사적 열정 등과 같은 풍요로움이 때로는 내부의 갈등이나 권력(세력) 다툼, 차별하고 진실된 대화의 부

족, 진실로 위장한 야심, 다름으로 인한 친교의 어려움 등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생활의 아름다움이 신뢰와 자유의 부족, 자신의 관점을 관철하려는 욕구, 차별 없이 서로를 그리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데 레사적 환대의 결핍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카리스마와 개인이 받은 은총이 선하고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면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진정한 기도라면, 나의 침묵은 상대를 향한 깊은 경청이 됩니다. 공동체는 만남을 통해서도 형성되지만 만남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뿐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교육되어진(훈련된) 관심 속에서 성장합니다. 공동체에서의 양성이 탄탄하고 잘 짜인 양성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즉 양성은 삶을 위한 양성이 되어야지 지식을 축적하는 양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성은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르멜 성인들의 가르침과 경험을 전파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양성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듯이, 모든 사람이 협력과 경청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멜에 입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공동체 생활 방식에 동화될 수 있는 이러한 개방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동반과 지도를 성숙하고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양성단계와 지속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두려움 없이 진실하게 자아 성찰의 과정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양성 담당자로부터 시작하여 피양성자와 협조사제까지 포함됩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서전 16:7)

상호 간에 서로의 동반자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녀 데레사가 하느님의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녀는 성녀를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¹⁾ 이는 것을 식별의 기본 요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방식에 따르면, ‘자신을 내어 보인다는 것’은 주어진(성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걸어가기 위하여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고, 집과 공동체의 창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배우기 위해 ‘완덕의 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겸손과 이탈과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데레사적 기도 방식에서 세 개의 기둥이고, 진정하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신선한 공기와 신뢰와 창의적인 대화의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르멜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학교가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친교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친교의 학교 안에서 완덕은 거룩한 성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멜 수녀들에게 주어졌던 ‘데레사적 기쁨’과 자매들에 대한 사랑으로 감화를 주었던 성녀와 함께 우리들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에 의해 통합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1) “우리의 진보에 대해서 참된 관심과 애덕을 가지고 살펴 주는 분들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입니다.” (천주자비의 글 16, 7)

우리의 기원에 대한 학교

이 여정은 항상 우리의 기원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샘 근처에 모여 살며 성모님의 보호 아래 이상적인 거룩한 삶을 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초기 은수자들을 이끌었던 가르멜의 시초인 규칙서(Regola)와 계획(Propositum)을 심화시키기 위해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창립하신 성녀와 ‘가여운’ 네 명의 수녀들의 데레사적 모험의 시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멜 기원들의 신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기 은수자들이 가진 비밀은 무엇이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단호하고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했을까요? 성녀 데레사의 가슴에서 타올랐던 보물은 무엇이였을까요? 성녀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성녀 자신을 내어맡기면서 ‘버릇없는 여인’에서 회심을 하여, 형제들과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우정 위에 기초 세워진 영성의 역사를 가능케 했던 성녀의 모험은 어떤 모험이었습니까?

그것은 재속 맨발 가르멜회에게 귀중한 순간이고,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할 수 있는 염세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느님은 항상 가장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마치 일치된 가족, 겸손한 가족, 함께 걷는 가족이 되어 교만하지 않고, 승리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신을 도구로 봉헌할 때입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나 제가 성모님처럼 즉각적으로 대담하게 '예'라고 응

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에인 카렘(Ain Karem)으로 가는 길 위에서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육 안에서 저의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형제자매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느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모님과 성 요셉께서 항상 여러분을 돌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로마에서

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미구엘 마르케스 칼레(Miguel Márquez Calle) 신부



Fr. Miguel Márquez Calle, ocd¹
Preposito General

Miguel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8)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

1.1. 콩고 가르멜 (계속)

그라시안 신부는 자신의 소품인 『신앙의 전파에 대한 자극』(Estímulo de la propagación de la Fe, Lisboa, 1586)에서 다음과 같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 바 있다: “저는 이 수도회가 창립된 후, 모든 우리 회원이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언제나 입술에 다음과 같은 말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정신과 원의를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신대륙으로 갑시다. 에디오피아로 갑시다. 중국으로 갑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읍시다.’”

1582년 3월 19일 그라시안 신부는 5명의 회원들에게 선교를 위한 특별 허가장을 내주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콩고에 대한 선교 그룹의 파견은 2번의 실패 후, 3번째 성공했다. 3명의 선교사들(성사의 디에고, 강생의 디에고, 예수의 프란치스코)이 1584년 9월 4일 앙골라에 도착했으며 그로부터 2달 후 마침내 콩고에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커다란 사도적 열정을 갖고 즉시 험난한 이 지역에서 복음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스페인에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삶과 선교 상황에 대해 전했다. 또한, 새로운 선교사들을 파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본국에서는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이 상황에 직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 그간 자신들의 활동을 보고하고 직접 새로운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렇

게 해서 그들은 험난한 여행을 통해 스페인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이 다시 콩고로 돌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콩고에서의 선교는 일단락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한참 후인 17세기 중반, 포르투갈 관구는 앙골라의 수도르완다에 수도원을 설립해서 선교 활동의 교두보로 삼은 적이 있다. 이 수도원은 1834년까지 유지되었으며, 회원들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추방되어 철수해야 했다. 그 후, 20세기로 접어들면서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다시 한 번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할 것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현대로 들어와 콩고민주공화국에 맨발 가르멜 수도원이 세워진 것은 1958년의 일이다. 당시 이 창립을 주도한 관구는 플랑드르 관구로, 이 관구의 회원들은 카낭가에 수도원을 세웠다. 그 후, 1969년 이 수도원은 로마 관구로 넘어갔다. 한편, 이와 별개로 1966년 카스티야 관구의 젊은 수사들로 구성된 그룹이 콩고에 대한 선교 활동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이 수사들은 그때부터 25년간 고마(Goma) 교구에 있는 고마, 마시시, 니아카리바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그 후, 수사들은 이 세 지역을 콩고 출신 교구 성직자들에게 넘겨주었으며, 선교 활동을 하던 대부분의 수사들은 원래의 관구인 카스티야 관구로 돌아갔다. 그중에 유일하게 한 수사는 콩고 지부로 이전해서 임종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묻혔다.

이 지역의 성소 개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되었다. 1979년 당시 선교 담당 부

총장이자 훗날 쿠웨이트의 주교가 될 아데오다토 미카예프(Adeodato Micallef) 신부는 콩고 출신의 성소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카낭가에 3명의 멤버로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조직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마르셀리노 포르셀리니 신부, 세바스티안 반데스트라텐 신부, 미겔 구티에레스 신부. 이들을 통해 많은 젊은 성소자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양성을 받아 서원을 받았다. 오늘날 이 카낭가 수도원은 영성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련소는 루뭉바시(Lubumbashi)로 이전했다. 반면, 피양성자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 콜레지오는 부카부(Bukavu)에 있고, 신학 콜레지오는 킨샤사(Kinshasa)에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양성소들 이외에도, 콩고 가르멜은 사도직을 위한 수도원과 선교를 위한 여러 본당(고마, 카낭가, 브라자빌), 그리고 성모님께 봉헌된 성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킨샤사에 영성 연구소와 피정의 집도 갖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전쟁 동안 르완다에서 피난 온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며 헌신적으로 일하기도 했다. 콩고 가르멜에는 많은 성소자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엄격한 성소 식별을 통해 지원자들을 받고 있다.

1994년 콩고 가르멜에서는 처음으로 복자 품에 오른 콩고 출신 회원을 배출했다. 그는 복자 이시도로 바칸자(Isidoro Bakanja)로, 스카폴라 코프라디아 회원이었다. 그는 스카폴라를 벗으려 하지 않았다는



복자 이시도르 바칸자

이유로 2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 그에게 있어서 스카폴라는 목주와 더불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가시적인 징표였다.

점차 회원 수가 불어나고 수도원의 수도 많아지자, 콩고 가르멜 회원들은 로마 총본부에 수도원 통치에 있어서 상대적인 자율권을 청했다. 이에 총평의회는 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숙고한 후, 그간 창립된 수도원들을 바탕으로 총본부 직속 지부를 설립했다. 이 지부는 성 요셉을 주보 성인으로 모셨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브라자빌 본당뿐만 아니라 1990년대로 들어와 카탈루냐 관구에 속하는 켈레(Kellé) 수도원도 설립되어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그 후, 카탈루냐 관구는 이 수도원을 유지하기 위한 회원들의 부족으로 인해 이를 포기해야 했다.

1.2. 이집트 가르멜

맨발 가르멜 회원들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진출한 것은 1926년이다. 회원들은 카이로의 슈브라(Choubrah) 지역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 수도원은 2003년까지 총평의회 직속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이 수도원은 이스라엘 지부에 귀속되었다. 카이로 수도원의 수사들은 특히 소화 데레사에게 봉헌된 유명한 성지를 통해 주변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전념했다. 이 성지에



이집트 가르멜 회원들

는 다양한 전례에 속하는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신자들도 방문했다. 여기에 더해, 이집트 가르멜 회원들은 여러 출판사를 비롯해 2개의 병원(하나는 카이로, 다른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아디(Maadi)에서 피정집을 지어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 이집트 본토 출신 성소자들이 수도원에 입회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초기에 프랑스와 레바논 관구에서 양성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활동했다. 마침내 2006년 마아디에 회원들의 양성을 위한 수련 수도원이 만들어져, 이집트 수사들은 안정되게 본토 출신 성소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1.3. 부룬디-르완다

폴란드 관구는 1971년 부룬디의 음핑가(Mpinga) 지역의 선교를 맡았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무송가티(Musongati) 지역의 선교도 맡았다. 그리고 1979년 음핑가에 아프리카에서 초기 수련소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다. 그러나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바가자(Bagaza) 대통령 정부에 의해 추방령이 내려지면서 선교사들은 부룬디를 떠나야 했다. 추방된 선교사들은 르완다의 부타레(Butare)에 정착해서 피정집을 개원했으며 우간다에 맞닿는 국경 근처의 가웅가(Gahunga)에 본당을 인수해서 사목을 하고 있다.

1990년에 부룬디의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자, 폴란드 가르멜 회원들은 다시 부룬디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무송가티에서 선교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에 내전과 학살이 있었으며, 이러한 비극은 가르멜 수사, 수녀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다. 결국, 회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죽

음의 위협을 피해 부룬디를 떠나야 했다. 물론, 그 가운데 일부는 위협을 무릅쓰고 훗날 다시 돌아와 수도원과 수녀원을 재건했다.

1.4. 중앙아프리카

제노바 관구의 회원들은 1971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진출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시 보조움(Bozoum)과 바오로(Baoro)에 2개의 본당을 만들어 선교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밀라노 관구와 나폴리 관구에서도 몇 명의 수사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활동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회원들은 제노바 관구 출신 수사들이며, 말라바르 관구의 수사들도 여럿 있다. 이들은 올레(Yolé)에 신학교를 설립해서 수사들의 신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안정적인 사제 회원의 배출에 힘썼다. 또한, 유기 서원을 한 학생 수사들의 양성을 위해 부아르(Bouar)에 학생 수도원을 설립했다.

1.5. 카메룬 가르멜

1969년 카메룬의 에투디-야운데(Etoudi-Yaoundé)에는 가르멜 수녀원이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수녀원은 1978년에 폐쇄되고 말았다. 그러나 카메룬의 신자들은 가르멜 수녀들이 다시 돌아와 살도록 요청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롬바르디아 관구가 화답했다. 당시 이 관구는 카메룬 교회에 가르멜 수사들과 수녀들을 파견할 것을 약속했다.

가르멜 수사들이 먼저 1985년 카메룬에 진출해서 야운데의 근교에 있는 은코아방(Nkoabang)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수사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본당 사목을 비롯해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촉진했다. 카메룬 출신

성소자들도 제법 입회해서 카메룬 가르멜은 잘 성장하고 있다. 수사들은 신학생들의 양성을 위해 도시의 대학들이 있는 지역에 학생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카메룬 출신 회원으로 야기 예수와 수난의 장 티에리 아보고(Jean Thierry Ebogo) 수사는 시복 과정 중에 있다. 그는 2004년 9월에 22살로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수련기에 들어갔지만, 얼마 후 골육종암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병고를 견뎌냈으며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하는 아픔도 감내했다.

2005년 그의 장상은 카메룬의 모(母) 관구인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관구로 보내 지속적으로 병을 치료하며 수련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탈리아로 갔지만, 도착한 지 얼마 후 암이 더욱 퍼져 치료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장상은 그를 레냐노 병원에 입원시켰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는 병고를 비롯해 이 힘든 과정을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그를 동반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방문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가 진정 성인이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 그는 병중이던 2005년 12월 8일 첫서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1달 후인 2006년 1월 5일 하느님의 품에 안겼다.

1.6. 부르키나파소와 코트디부아르 가르멜

남자 가르멜이 부르키나파소에 진출한 것은 스페인의 카스테욘 지방의 알케리아스(Alquerías) 가르멜 수녀원 덕분이다. 이 수녀원은 1980년 수도인 와과두구에서 235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문다소(Moundaso)에 수녀원을 창립한 바 있다. 1992년 아라곤-발렌시아 관구는 여러 수사들을 부르키나파소에 파견해서 데두구(Dedougou)에 수도원을 창립했다. 그들은 이곳을 바탕으로 교구 사목에 협력하는 가운데 가르멜의 카리스마를 전파했다. 또한, 그곳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해서 양성함으로써 가르멜이 뿌리내리도록 했다.

1998년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미겔 구티에레스 신부가 코트디부아르로 넘어와 수도원을 창립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1999년 아라곤-발렌시아 관구의 회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코트디부아르에서도 수도원을 창립한 후, 그곳 출신 성소자들을 발굴해서 양성했다. 부르키나파소와 코트디부아르 가르멜 회원들은 아라곤-발렌시아 관구 직속 지부를 구성한다.

(다음 호에 계속)

* 8월 회보 11쪽 '1. 16세기 콩고에서의 맨발 가르멜'을 '1.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 1.1. 콩고 가르멜'로 정정합니다.



중앙아프리카와 카메룬의 가르멜 회원들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9)

마리 보댕-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단순함

우리가 레오니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매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레오니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이들은 모두, 바로 단순함에서 그녀의 매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레오니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웃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테레사의 두 대모, 곧 세레성사 때에는 마리, 견진성사 때에는 레오니 자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 성녀의 대모들 중에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지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알고 계시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세레 대모는 천국으로 곧장 날아갈 거야. 우회하지 않고 말이지. 반면에 다른 한 사람, 견진 대모는 아무래도 얼마 동안 (연옥에서) 불에 구워지게 될 거야. 글썸, 난 우리가 서로를 가깝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는 거지.”

실제로, 마리는 1940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레오니는 1941년에 마리의 뒤를 따랐다.

레오니는 정말 이따금씩 앞날을 예고했다. 폴린에게 보낸 생일축하 편지에, 레오니는 그녀만의 심성 고운 단순함으로 다음

과 같은 말들을 덧붙였다. “내가 느끼기에 언니와 사랑하는 셸린은 아주 오래 살고 나서 하늘나라를 향해 날아갈 거야.”

여기서 다시금 레오니는 틀리지 않았다. 그녀의 두 자매 모두 90살에, 폴린은 1951년에, 그리고 셸린은 1959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레오니의 단순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녀가 쓴 상당히 많은 글들과 했던 수많은 말들을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단지 1907년 11월에 마리가 레오니에게 썼던 한 통의 편지 내용 중에 꽤 유쾌한 부분만을 인용하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레오니는, 세상에서 살던 시절, 외모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운 좋게도 그러한 여성스러움은 레오니의 수도복 바로 아래에서도 여전히 아주 잘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레오니는 턱에 자라고 있었던 수염에 대해 걱정스러워했다. 정말이지, 수녀원 내에서는 수염을 뽑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족집게 한 벌을 얻었다. 하지만 순진하게도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처럼, 레오니는 그 족집게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마리는 더 높은 차원의 주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한 후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다. “사랑하는 작은

동생, 이젠 네 멋진 족집게를 상처내지 않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 몇 마디 말로 가르쳐줄게. 한번 요령이 생기면, 주의할 것조차 없지! 네 왼손으로,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에, 네가 그 멋진 수염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턱의 부위를 아주 꼭 잡고 있어야만 하지. 심지어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도, 넌 턱을 경직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일이 쉬워지게 되고 전혀 상처 나지 않아. 단지 네가 아직까진 요령이 없을 뿐인 거지.”

마리는 익살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세세하게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틀림없이 수염 뽑는 일에 익숙해지게끔 연습했을 거라고 의심하겠지. 사실 그렇게 해보았어! 하지만 난 절대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 수확물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뽑아버리거든. 난 할 일없이 놀고 먹는 정원사는 아닌 거지! 정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린 기회가 되는 대로 데이지 몇 송이를 너한테 보낼게.”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 마리가 쓴 이 편지를 내가(글쓴이) 얼마나 즐겨 읽었는지! 그렇기에 독자들께서도 (나처럼) 즐겨 읽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이런 편지를 통해 우린 그러한 수도자들에게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어, 부단한 자기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나 영웅적이었던 그분들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일상의 사소한 일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수준에까지 내려오게 되는지 보게 되는 것이다. 그분들은 진정 우리의 자매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에 대한 다른 것, 곧 세속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 결과적으로, 우린 그 수녀님들이 심오한 영적 사안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경청할 준비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16세기에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냄비들 한가운데에도 계시니다.” 그분께서 (턱수염을 뽑는) 족집게들 한가운데 계시면 안 된다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비탄의 요한 수사가 그린 초상화에서 당신의 두 눈을 너무 두드러지게 돌출시켜버렸다고 나무랐던 분 역시 데레사 성녀였다. “나를 그렇게나 못 생기게 만들어버리셨으니, 하느님께서 요한 수사님, 당신을 용서해주시기를!” 왜냐하면 성녀는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결점들이 아닌 아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피정 결심들

레오니는 리지의 수녀원의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칸 수녀원에서 있었던 각각의 피정에 대해 말해주었다. 레오니는 사막에서의 시간들을, 때로는 열성적으로, 때로는 어둠 속에서 하느님과 숨김없이 마주하는 강력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그렇지만 각각의 경우, 그녀는 새로운 결심으로 각 피정을 마쳤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러한 결심들을 풀린과 공유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작은 어머니”는 기도와 서신을 통해 레오니가 결심한 것들을 지키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레오니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방문회 수녀원 문서고에 보관되어 온 그러한 결심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때때로 가난의 정신으로 작은 종이 쪼가리에 자신의 계획들을 휘갈겨 적었던 작은 레오니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런 종이 쪼가리들이 그렇게나 관심

을 받고 읽혀질 거라는 사실을 들었다면 실컷 웃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1922년 11월 3일에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난 나의 데레사가 나한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새겨들어. ‘나의 작은 길은 틀림이 없어.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난 틀리지 않았지. 나의 슬픔, 나의 행복, 나의 작은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꽃들인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던 방법이야. 내가 했던 대로 해. 그러면 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폴린) 언니의 거의 어머니 같은 보호 아래, 난 꽃들을 예수님께 던져드릴 거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데레사는 레오니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1923년에, 새로 시복된 (레오니의) 여동생은 그녀의 마음에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피정 때,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사랑하는 작은 언니, 언니가 보내준 지난 편지에서, 언니 나한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주었지. ‘네가 만약 성녀가 되길 바란다면, 너한테 쉬운 일일 거야.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분과 더욱 더 친밀하게 일치하도록 하렴.’ 난 그러한 두 가지 사항,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대함과 겸손, 그리고 또한 일하는 데 있어서 보다 큰 부지런함에 집중하고 싶어. 언니 내가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내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언니 수도생활을 계속해나가야만 하는 거지.”

다음 해인 1924년 11월에, 레오니는 1923년에 이미 했었던 같은 결심들을 했다. 그러므로써 그녀가 시간 엄수, 근면함, (변덕스럽지 않은) 좋은 기분이라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일생을 통틀어 했던 레오니의 모든 피정 결심들은 관대함, 인내, 친절과 연관이 있다. 그녀는 그러한 덕행들을 실천하는데 요구되는 희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했던 완덕에 대해 저항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레오니는 무엇보다도 겸손함, 나서지 않는 것, 작아지는 것을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떤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조차 소유하고 있다”고 적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반항적인 없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레오니는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께서 당신 딸들에게 가르치셨으며 칸 수녀원의 수녀들이 따랐던 근본 원칙을 이해했다.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있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사랑으로 하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니는 여전히 바로 지금 그리고 다시금 걸려 넘어졌다. 1926년 12월에, 그녀는 폴린이 보낸 질문하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로 답변을 했다. “언니 내가 했던 결심에 충실한지 어떤지 물어보았지. 슬프게도, 난 많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해. 하지만 난 낙심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만약 작은 아이가 계속해서 넘어진다면, 예수님께선 그 아이에게 자비를 훨씬 더 많이 베풀어주실 거고, 그 아이를 당신 두 팔에 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언니도 알 수 있듯이, 언니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사악하기만 한 깊은 곳에는, 사랑보다 한층 더한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레오니의 영성을 더 잘 이해하려고 애쓸 때, 1934년 10월에 있었던 피정

중에 그녀가 포착한 비스듬한 글씨체로 된 어떤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빛나는 아주 작은 것을 놓아두신 제 인생에 있어서, 높이 평가하는 인간적인 가치들은 경멸하면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제가 진실한 가치들을 선택하고, 끊임없는 희망을 통해서 오직 절대적이며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을 열망하게끔 하십시오.”

레오니가 1937년에 적었던 마지막 피정 결심들을 통해, 온갖 진실함과 단순함 속에 그녀가 그토록 참을성 있게 추구했던 작음으로 요약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레오니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거든. 우리의 거룩한 창립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하게도 결점이라는 것은 나약할 뿐이야. 그렇기에 짜증을 내지 말고 겸손해져야만 하지. 난 작아지게 되기를, 아주 작아지게 되기를 원해! 작은 아이들은 넘어져도 심하게 다치지 않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다치기엔 너무 작기 때문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따르고 싶은 모범이야. 난 아주 작아지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이라 느낄 수 있어.”

폴린의 충고

레오니의 언니 동생 수녀들은 그녀가 자신의 수도여정을 따라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다. 레오니는 종종 리지외 가르멜에서 보낸 위로의 편지들을 받아보고서는 울먹이곤 했다.

아마도 폴린은 레오니의 자매들 중에서 가장 어머니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재미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다. 또한 그녀는 이따금씩 그렇게나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던 작은 동생을 교화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다소 교훈적인 인물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무 힘들게 눈물을 거두려고 하지 마렴. 그냥 눈물이 흐르도록 놔두는 데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눈물을 예수님께 봉헌해. 마치 그 눈물이 사랑의 눈물인 것처럼 말야.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되지. 바닥을 짓게 하지 않으려면 네 손에 쥐고 있는 손수건과 더불어서 말이지! 사랑하는 작은 동생, 우리 그냥 행복해지자. 사실 지금 네가 행복한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다른 편지에서, 레오니의 “작은 어머니”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성녀가 되렴. 하지만 제발 두려워하는 성녀가 되지는 말아. 신뢰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렴. 네가 항상 지니려고 하는,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불완전함에 대해 울지 마. 그렇게 우는 건 시간낭비일 뿐이야.” 레오니를 위로하기 위해, 폴린은 다음과 같이 그녀를 확신시켰다. “하느님께서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넌 천국에서 즐기게 될 영광과 사랑으로 인해 얼마나 놀라게 될지! 누군가 울퉁불퉁한 이마와 비뚤어진 치아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아무 상관도 없단다.” (사실 레오니의 치아는 정말 보기 흉했다. 나중에는 이가 거의 다 빠져버렸지만, 언제나 틀니 착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레오니는 심지어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품없는 외모에 대해 심히 불안해했던 것 같다. 폴린은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생각인지! 머리를 떼어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하느님께선 네 머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마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참수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것이 바로 레오니를 위로하기 위해 폴린이 했던 시도였다. 이 시기 동안 레오니는 자신의 완고한 기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종종 그녀의 언니 동생 수녀들 중 한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레오니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편지를 써 보내야만 했다. 여기에서 다시금 폴린이 썼던 글을 보자. “만약 네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께 그리고 동료 수녀님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청하렴. 그러면 우울해지지 않고 만족하게 될 거야.”

다른 편지에서 폴린은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작은 동생, 늘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렴. 비참한 감정으로 인해 너무 많이 괴로워하지 말아. 왜냐하면 넌 나처럼 항상 아주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기운을 내. 내가 너에게 간청하마. 주님께선 당신 자비하심으로 우릴 위해서처럼, 널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 주셨지 않니. 더구나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말이야.”

다음과 같이 언니 수녀가 한 몇 마디 말만으로도 레오니는 충분히 용기를 얻었다. “사람들은 엄마가 임종 중에 오로지 레오니의 앞날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이야기한다. 오, 그런 레오니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그 애가 얼마나 많이 유순하게 되었는지!”

인정 많고, 예민하면서, 때로는 까다롭기까지 한 레오니는 리지외의 자매들이 보내는 우편물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함께 사는 동료 수녀들은 칸 수녀원에서 (자매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는 레오니가 소식이 늦게 도착할 때 얼마나 쉽게 우울하게 되어 버리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외톨이로서 레오니는, (한 수녀원에서) 같이 사는 자매들보다는 훨씬 더, 모든 마르탱 가족들을 떠받치고 있었던 형제적인 사랑에 대해서 문자로 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폴린은 레오니에게 애정이 넘치게 글을 써 보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문회 수녀(레오니)가 그녀에게 위협이 되었던 의기소침과 낙담하는 것을 극복하게끔 하려고 타이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용달샘 *

주님의 기도(3)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원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
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사모 테레사 성녀께서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치는 사람치고 다른 여러 가지 결점들을 보았지만 남을 선뜻 용서해 주지 않는 결점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 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하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라 하셨습니다. 즉, “죄를 용서해 ‘주려 하오니’ ” 가 아니라, “용서하여 주듯이” 란 말씀입니다. 성녀께서는 “남을 용서해 주는 이 하찮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중대한 일” 이라 하였고, “나는 용서 해 줄 것은 별로 없고 용서받을 일만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느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남의 잘못을 용서’ 하는 데는 인색하다면, 우리는 받기만 좋아하고 사랑과 자비는 베풀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지극히 공의(公義)로우셔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마태 6, 14-15)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느님의 모상을 따

라 당신과 비슷하게” (창세 1, 26 참조)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동방의 진주’ 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이나 없는 이나, 남자나 여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옳은 사람이나 옳지 못한 사람이나” 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 5, 43-48 참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남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축복을 내려 주시길 빌 때,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닮게 되고 하느님과 일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셨습니다. (루카 23, 34)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40)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제30장 해설(계속)

1. 유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라는 인물은 성녀가 전하는 이야기의 연대를 정하는 데 필요하다. 성녀 데레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현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의 모습을 상기한 바 있다(자 27, 16). 성녀는 성 요셉 수녀원을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툴레도에서 돌아와 다시 그를 만났다(자 36, 1; 1562년 7월).

이제 여기서 성녀는 자신과 베드로 수사 간의 첫 번째 만남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만남은 아빌라에 있는 우요아의 기오마르 부인의 저택에서 있었다. 성녀는 양심의 문제, 즉 자신이 받은 신비적 은총들에 관한 문제를 그 부인과 상의하기 위해 며칠간 그 부인의 집에 머물렀다. 이 상황에서 성녀와 베드로 수사 간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는 기오마르 부인이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수사님께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게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당신 집에 여드레 동안 머무를 수 있는 허락을 제 관구장님께 받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그분 집에서 그리고 여러 성당에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그분이 처음 오신 여기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시다” (4절).

이 대화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성녀가

상당히 이해받았다는 점이다. 이 바로 전에 성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절). 그런데, 이제 성녀는 즉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거의 처음부터 그분이 경험으로 저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4절). “이 거룩한 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제게 빛을 주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5절).

성녀와 베드로 수사, 이렇게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7절). 이 시기는 짧았다. 왜냐하면, 베드로 수사는 1562년 8월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나눈 편지를 통해 베드로 수사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가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그 이상은 없다.

성녀는 베드로 수사가 다시 아빌라를 떠나야 할 당시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분은 제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7절). 그러나 성녀의 문제에 깊이 관여해서 성녀를 두려워 떨게 했던 그 유명한 ‘거룩한 신사’ (가스파르 다사)가 침묵 가운데 성녀를 비난했던 그 상황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성녀 데레사는 1561년 말에 아빌라를 떠나 툴레도에 머물렀다. 따라서 본 장은 1560년부터 1561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개된다.

2. 신비적 감정 이입(empatía)

이 주제는 성녀 데레사의 신비적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다. 성녀와 베드로 수사 간에는 심층에서부터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서로 감정 이입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성녀는 ‘감정 이입’(empatía)이라는 유식한 어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성녀는 두 신비가(성녀 자신과 베드로 수사) 간에 체험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끈질기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신의 자전적 자료에서 교의적 차원으로 옮겨갔다. 성녀는 자신이 받은 ‘신비적 은혜들’이 오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박학한 신학자에게는 성경 또는 교회 감각을 바탕으로 그러한 은혜들의 참됨을 평가하기 위해 밖에서부터 거기에 접근하게 된다. 반면, 신비가는 그와는 다른 관점을 갖는다.

성녀 데레사와 베드로 수사 간의 이 만남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 우선, 당시는 1560년이였다. 성녀는 그때까지 약 5년간 신비체험을 해왔다. 이는 성녀 자신에게 거의 해독 불가능한 일이었다. 성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가공할 만한 체험을 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자 27장). 그뿐만 아니라 작열하는 ‘화살’의 은총 역시 그러하다.
- 하지만 성녀는 아직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은총을 받지 못했다. 이미 성녀는 그 이전에 신비적인 충만함에 이르려면 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체험을 이해하고 이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은혜이며 은총인지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 이해시킬 줄 아는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자 17, 5).

- 이제 성녀는 여기서 베드로 수사와의 만남을 통해 신비체험의 ‘은혜’에 대해, 즉 이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에 대해 향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시 저는 그것을 말할 줄 알기 위해 지금처럼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당신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제게는 저를 온전히 이해하고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해명해줄 분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4절).
- 성녀는 베드로 수사와의 만남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저는 거의 처음부터 그분이 경험으로 저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상동). “그분은 제게 헤아릴 수 없이 큰 빛을 전해 주셨습니다”(상동). “이 거룩한 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제게 빛을 주고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애석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을 찬미하며, 그것이 하느님의 영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신앙이 아니라면, 이보다도 더 참된 것은 있을 수 없고 더 믿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5절).
- 두 사람 간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분은 저와 함께 많은 위로를 받으셨으며 제게 온갖 호의와 은혜를 베풀 주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도 늘 제게 많은 관심을 두고 당신의 사정과 일에 대해 알려 주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실행을 통해 당신이 갖고 계신 갈망과 더불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상동). “주님께서 이 상태에 이르게 하신 이에게는 주님께서

그에 대한 시작을 허락하신 사람과 우연히 만나는 것에 비견될 만한 기쁨이나 위로는 없습니다”(상동). “우리는 서로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즉, 그 이후로 제게 일어나는 일을 그분에게 써 보내고, 우리 자신을 많이 하느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7절).

이는 세 개의 시기로 이루어진 감정 이입 과정에 대한 직선적인 묘사이다. 첫째, 성녀 자신의 체험에 대한 수수께끼 가운데 처해 있는 성녀의 블록이 있다. 그다음으로, 성녀와 베드로 수사 간에 체험에 대한 상호 비교와 이해가 이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사람 간에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이것이 성녀가 신비체험을 소통하는 ‘세 번째 은혜’를 획득한 순간이 아닐까 싶다. 이는 성녀로 하여금 『자서전』을 통해 많은 페이지를 쓰게 했다.

이것이 베드로 수사와 관련된 유일한 신비적 감정 이입의 경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세비야 종교재판소에 자신의 신비생활에 대한 일련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때(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체험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성녀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썼다: “이 은혜는 글로 쓸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고 54, 14).

3. 성녀 테레사의 내적 어두움들

그간 성녀는 자기 영혼의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멈춰서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성녀는 이 주제를 위해 본 장의 후반부를 할애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깥의 반대로 인해 촉발된

슬럼프의 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녀를 내면에서부터, 성녀 자신의 심리적 톱니바퀴에서부터, 그리고 계속되는 신비체험의 파도로 인해, 성녀를 때리고 비참하게 만든 어두컴컴한 돌풍의 순간을 말한다. 성녀는 충동과 두려움, “함께 기쁨과 고통”으로 독촉받은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본 장을 시작했다: “어떻게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1절).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가 가져다준 엄청난 빛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성녀를 완전하게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런 안전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 현시가)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악마라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은 저를 두려움의 길을 통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성녀는 이미 앞 장에서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고통과 영광은 함께 저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자 29, 11).

이는 분명 매번의 신비체험에서 성녀를 동반한 어두운 밤이라는 장식이었다. 성녀는 조울증 환자가 아니다. 성녀는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교체되는 리듬의 희생자가 아니다. 하지만, 성녀는 사랑과 고통이라는 지극히 강렬한 순간의 리듬에 통상적인 세금을 지불한다. 이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감정이 감퇴하는 단절의 순간, 대체로 공간이 넓은 일종의 휴지기에 뒤이어 온다. 이에 대해 성녀는 종종 하루(성녀 스스로 “하루밖에 지속하지 않았습니다” [11절]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다른 때에는 8일간, 15일간 그리고 3주간 지속하였고, 특히 제게 기도의 기쁨을 주곤 했던 성주간에는 더 지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상동).

성녀는 지극히 세부적인 심리적 열쇠와 더불어 영혼의 상태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성녀는 자신의 신비적인 관점에서 이런 영혼의 상태들을 본성의 영역에서 초본성의 영역으로 환원했다: “은총이 숨어 버리면 영혼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녀가 받은 신비적인 은총들이 성녀를 심리적, 육체적 빈약함과 나약함으로부터 해방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육신과 영혼의 비슷한 시련” (13절). “제게는 아주 위중한 육신의 병들이 있었지만, 영혼의 병들은 없었기에, 육신의 병들을 아주 기쁘게 보냈습니다” (8절).

성녀의 자기 영혼에 대한 분석에는 두 가지 상황이 구별되고 있다. 한편에는 성녀의 정신을 어둡게 하고 모든 것을 언짢게 느끼게 하는 단순히 억압적인 순간들이 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으며 무엇을 갈망하지도 못한다. 또한, 여기서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향유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저를 잡아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이 상태에서 영혼에게는 모든 내적 동기들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성녀는 그런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풀을 뜯어 먹는 ‘작은 당나귀’ (asnillo)에 비유했다. “또 다른 여러 경우에 제 영혼은 바보처럼 행동합니다. -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 저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사람들의 뒤만 밟아갑니다. 고통도 영광도 느끼지 않고, 삶이든 죽음이든, 기쁨이든 생각이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혼은 풀을 뜯어 먹고 섭취하는 작은 당나귀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지만, 거의 그것을 느끼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8절). 정신적인 절망처럼 영혼이 처한 또 다른 상황들과 함께 강렬한 대조 속에서,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것에 정신을 고정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느낀다. “또 다른 여러 경우에,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고, 자리에 앉아서 잘 있을 수도 없으며,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지성과 상상은 제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압니다. 반면, 제가 보기에 (영혼에게는) 선의(善意)가 있으며 모든 선을 (행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묶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지성은 미쳐 날뛰는 광인(狂人)처럼 보일 만큼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드리는 동안, 지성이 고요하게 있도록 주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16절). 성녀는 자신의 어두운 밤을 통해 진정한 고뇌의 순간을 거쳤다.

다른 한편, 성녀는 자기 영혼이 처한 여러 상태에서 악마의 간섭을 겪어야 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옥을 조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12절). 악마야말로 성녀에게 파괴하는 잘못된 겸손을 제안하는 당사자이다. “제가 보기에, 저는 지극히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과 이단이 일어났는지요. 그것은 모두 제 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8절). “제게는 그것이 악마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데 대한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악마를 알고 있듯이) 많은 경우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악마가) 저를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9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악마들이 영혼을 갖고 공놀이를 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혼은 악마의 권능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11절). 성녀는 다음장에서 악마적인 기원을 갖는 일련의 일화와 함께 이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를 확장해서 다뤘다.

(다음호에 계속)

* 예수와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얼씨구 절씨구

A la gala gala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옥에서 살라십이
우리 님 뜻이시니
얼씨구 절씨구
修院(수원)이 좋을씨구

예수님 베푸시는
婚宴(혼연)이 푸지구나
골고루 괴어주고
우리 비취 주시니

십자가 따르자
알뜰 살뜰히
얼씨구 절씨구
修院(수원)이 좋구나

이 자리가 웬 자린가
님이 택한 자리로세
행여 죄를 범할세라
우리 지켜 주신다네

이 옥살이 달게 참고
오순도순 살작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위로함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셨다네

가멸하심 바라보며
티끌 세상 더러운 것
덧없는 것 다 버리면
그지없는 영광속에
하고한 것 주시리니
얼씨구 절씨구
修院(수원)이 좋을씨구

Pues que nuestro Esposo
nos quiere en prisión
a la gala gala
de la Religión.

¡Oh qué ricas bodas
ordenó Jesús!
Quiérenos a todas,
y danos la luz;

sigamos la Cruz,
con gran perfección:
a la gala gala
de la Religión.

Este es el estado
de Dios escogido,
con que del pecado
nos ha defendido.

Hanos prometido
la consolación,
si nos alegramos
en esta prisión.

Darnos ha grandezas
en la estema gloria,
si por sus riquezas
dejamos la escoria
que hay en este mundo,
y su perdición,
a la gala gala
de la Religión.

어화 사로는 잡혔어도
묘할손 자유로다
영원을 위함이니
복될손 삶이로다

¡Oh qué cautiverio
de gran libertad!
Venturosa vida
para eternidad.

어디랴 이 마음이
놓여남을 바랄소나
얼씨구나 절씨구
修院(수원)이 정 좋구나

No quiero librar
ya mi corazón.
A la gala gala
de la Religión.

< 해설 >

이 시는 한 젊은 수녀가 일생을 바쳐 평생 봉쇄 수도생활을 하겠다고 하느님께 서원을 한 후,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성녀가 지어 공동체의 수녀들이 함께 부르며 즐기게 한 노래의 가사다. 원문이나 그 주해 부분에서 작시(作詩)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지만, 성녀가 창립한 열일곱 군데 개혁 가르멜 수녀원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 작품의 주제는 수녀들이 자발적으로 끌어안는 봉쇄 수도생활은 하느님 사랑의 감옥이라는 것이고, 성녀는 그것을 흥겨운 가락에 맞춰 즐겁게 부르도록 재미있는 말마디로 지어냈다. 성녀가 감칠맛 나게 쓴 시를 쉬운 말로 풀어 헤쳐보면 대강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봉쇄 생활을 하라 하심이/ 하느님의 뜻이시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녀원이 좋습니다 // 주님이 베풀어 주신/ 혼인 잔치가 풍성합니다/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시니// 우린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한눈팔지 말고 철저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녀원이 좋습니다// 이 직분이 웬 은혜인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성소로다/ 혹시라도 우리 넘어질까봐/ 우리 지켜 주신다네// 이 감옥살이 달게 참으며/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네// 풍요로운 (천상복락) 기대하며/ 하잘것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미련없이 포기하면/ 끝없는 영광 속에/ 온갖 것 다 주시리니 /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녀원이 좋습니다// 아아 몸은 비록 갇혔어도/ 신기하게도 맘은 자유롭구나/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둔/ 복 받은 삶이로다// 어디랴 이 마음이/ 풀려나기를 바랄까보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녀원이 정말 좋습니다.

한자로 된 말들 중에 修院은 수녀원 또는 수도원의 준말이고, 婚宴은 혼인 잔치의 준말이다. 그리고 우아한 옛말(古語)인 둘째 연의 <괴어주고>는 <사랑해 주시고>로 읽으면 되고, 여섯째 연의 첫머리에 <가멸하심>은 부요하심, 또는 풍요로우심으로 읽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 선교 *

신주 공동체와 한 지붕 두 가족

권상균(아기예수의 아우구스티노) 신부/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6개월 전 학생들의 양성을 위해 타이베이 공동체에서 신주에 있는 싱가포르 공동체로 옮겼다. 그동안 타이베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지도 3년, 그런데 타이베이의 작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양성함에 있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때마침 싱가포르 지부에서 신주 수도원을 빌려준다는 소식을 들었고, 현재 신주 공동체의 3명의 형제들과 한국 공동체 5명, 8명의 형제가 한 지붕 두 가족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한 건물에서 두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만 넓은 공간의 수도원의 분위기와 8명의 형제들이 함께 수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다. 더불어 시원한 날씨는 타이베이 공동체에서 느낄 수 없는 위안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신주 공동체는 본당이 있어서 유기서원 형제들에게는 앞으로 중국에서 사목을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한 직접적인 사목지로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본당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본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목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해서 웅건형 마리아노 형제는 사목의 일환으로 한 달에 두 번 신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지부의 류밍 요셉 형제는 10개월 전 한국 공동체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양성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대만에서 3명의 중국 형제들이 함께 철학 2년을 마치고 현재 신학 1년 과정을 마친 상태이다. 특히 대만의 신자분들이 유기서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신주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대만의 가톨릭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떠 가게 되는 것 같다. 사실 신주 공동체는 나름 큰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만 역시 성소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신주 교구의 70%가 한국 신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다른 교구에서도 대부분의 신부들이 필리핀, 베트남 등등 외국 신부들이 대부분이고 신자들의 노령화로 대만의 신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만의 천주교는 1626년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건너온 스페인 도미니코회 수사 마르티네스와 동료 선교사 5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교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선교사들은 대만 북부에서 활동하면서 약 4,500여 명을 영세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1642년에 스페인이 대만의 남부를 차지하면서 선교사들이 축출되었고 대만의 선교는 거의 200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후 대만에는 수차례 선교사가 파견되었고, 1859년이 되어서야 대만의 남부지방에 선교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미미했으며, 1895년 청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부터 교회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된다. 당시 약 40년 동안 대만에서는 5배 이상의 신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1948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온 후 1950년부터

1970년까지 대만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에서 많은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대만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만은 정치적 불안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회 구제 사업과 교육 사업에 힘을 쏟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되고 신자 수는 30만 명을 넘어서 그 절정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종교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 대만 사회의 뿌리 깊은 민간 신앙의 세력, 도시화로 인해 신자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과 신자 수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 비로소 1970년 이후 대만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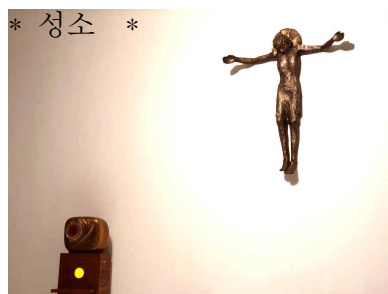
쇠퇴기를 맞았고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가톨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수도원 본당의 미사에 봉사하면서 대만의 가톨릭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본다. 아쉽지만 500년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1.5%의 가톨릭 신자율과 아직 선교지로서 미성숙한 가톨릭의 모습을 체험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이번에 견해봉 하비에르 형제가 제2 수련을 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 중국 형제로서는 처음으로 제2 수련을 받게 된다. 견해봉 형제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제2 수련을 무사히 끝내고 대만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방에서

우리는 인간인 한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약함과 결점, 결핍과 실존적 한계 속에서 자신만의 적막한 광야와 생명 없는 삭막한 사막을 안고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때문에 죽기 살기로 거기서 벗어나려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내면의 메마른 광야와 모래사막에서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샘물이 솟게 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하느님께 온전히 'fiat' 으로 봉헌하여 아기 예수님을 받으신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은총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혹시 카레를 좋아하시나요? 카레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카레를 먹고 나면 요리한 냄비나 떠먹은 그릇에 색이 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카레 색이 바로 빠지지 않아 색이 뻥 상태로 사용하곤 합니다. 몇 번 사용하고, 설거지를 하면 어느새 카레색이 빠져 깨끗해집니다.

한번은 카레를 먹은 뒤 함께 설거지하는 수사님과 대화하다가 카레 색이 뻥 그릇을 보고, 카레를 먹게 되면 카레의 색이 그릇에 덧씌워져서 본연의 색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색을 찾으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오갔죠.

우리에게 세상의 때가 묻는 것도 이와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레를 맛있게 먹은 것처럼 세상적인 일에 빠져들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처음 넘어지는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같은 유혹을 다시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찾으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야 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다시 전처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넘어진 것에 실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희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소문의: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가르멜 뜨락 *

어사화 쓴 앞집 담장



안병희(아기예수의 껌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앞집 담장은

과거에 급제했나보다

넘실넘실 어사화 쓰고 있네

누가 살고 있을까

저리 정갈하게 가꾼걸 보면

모진 세월 잘 이겨낸

삶에 어사화 쓴 어머니 있겠지

아마도 내것 네것 없이

흥허물 덮어가며 이웃을

감싸 안은 아버지 있겠지

지금은 장성해

제 몫을 하는 어여쁜

자녀들이 있었겠지

돌아보면

가정 가정 상 주어 칭찬할

우리네 삶이

어사화 능소화 끝에

주렁주렁 열렸으리라

* 성인 *

예수 성심의 성녀 테레사 마르가리타

동정 기념일(9월 1일)

1747년 토스카나 지방 아레초의 레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레초(Arezzo) 사람들은 흔히 성녀 테레사 마르가리타 레디(Teresia Margarita Redi)를 안나 마리아 레디(Anna Maria Redi)라고 불렀다. 10세 되던 해에 피렌체(Firenze)의 성 아폴로니아 공동체의 수녀들로부터 수년간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Teresa of Avila)의 책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권고에 이끌려 가르멜 회원이 되기를 원했고 1764년 9월 1일 피렌체에 있는 성녀 테레사의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특히 사도 요한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에 바탕을 둔 특별한 관상적 체험을 하였으며, 사랑과 자기희생의 숨은 생활에 강한 성소를 느껴 이를 실천하였고, 자매들에 대한 영웅적 애덕 행위로 이를 증명하였다.

1770년 3월 7일 23세의 일기로 피렌체에서 선종한 그녀의 유해는 현재까지 부패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피렌체 주민들로부터 높은 공경을 받고 있다. 그녀는 1929년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으며, 1934년 3월 19일 같은 교황으로부터 시성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 예수 성심의 성녀 테레사 마르가리타 「시성 결정문」에서 -



테레사 마르가리타는 지상생활이 짧았지만 일생동안 그 무고한 영혼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순결한 영혼은 스스로 하느님을 찾았고, 하느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 지극한 순결이 깊은 순결의 덕과 하나가 되어,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함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신이 업신여김 받는 것을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겸덕과 순결을 통하여 그 영혼은 사랑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그 사랑의 열정이 천사와 같이 되는 정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말을 할 때면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에 대한 그러한 열렬한 사랑으로써 이웃에게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매 수녀들, 특히 앓는 자매에게 겸손과 친절과 완전한 극기의 정신으로 봉사하여 사랑의 천사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의 불꽃은 주로 성체성사로 양육되었고 그녀는 영성체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토스카나 지방에서 안센주의의 오류가 큰 힘을 떨치지 못하게 한 예수 성심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

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빛나는 정결의 표본과 수호자로 모신 동정 성모님께 대한 지극한 신심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머지않아 얻을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보여 주듯이 관상기도의 특을 통하여 드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어 하느님께 날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자, 사모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참된 딸이며 십자가의 성요한의 충실한 제자인 그녀는 순교의 정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님을 더 닮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순교의 정신을 가진 것은 그녀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강력해질수록 그 사랑은 영혼으로 하여금 더 깊이 사랑하도록 이끌고, 또한 우리의 그 어떤 사랑도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은 더 큰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암흑과 같은 캄캄한 속에 있으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영혼은 스스로를 이기고 이웃에게 구원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렇게 지극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묵묵히 고통과 사랑과 기도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영혼은 앞장서서 인류에게 참된 이익을 얻어주고, 그리하여 온 교회 안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칭송받을 것입니다.*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14)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제 6일째 (5월 5일, 부활 제 5주간 토요일)

네덜란드(에히트 가르멜 수녀원) - 독일(퀵른 가르멜 수녀원, 퀵른 대성당)

베스테르보르크 중간 수용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짐을 풀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녹음이 짙어져가는 길을 산책했다. 밖에서 보는 건물 안 주황색 조명 등 아래 풍경이 따뜻하다. 평범했던 지나간 일상을 그리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우리는 타인의 일상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일상도 함부로 무너진다. 빨간 파라솔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풍경이 어둡으로 녹아드는 시간에 빨간색이 선명했다. 이제 베스테르보르크를 떠난다.

베스테르보르크에서 에히트로, 우리는 성녀의 여정과는 역방향으로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간다. 차로 세 시간, 성녀께서 나치 비밀경찰에게 붙잡혀 나오신 에히트 수녀원을 향한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인 마스트리히트의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에히트에 오전 11시쯤 도착했다. 작고 오래된 도시, 상가와 주택이 구분 없는 도로를 걷다 보니 어느덧 에히트 수녀원 앞이다.

독일의 퀵른 수녀원이 2차 대전 후 재건된 것에 비해 이곳은 성녀께서 머무르셨던 수방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온 곳이다. 성녀는 이곳 수녀원 정문 앞에서 나치에 의해 자동차로 실려 갔다. 그때도 지금처럼 인가와 접했

었는지 성녀가 실려 가는 모습을 수녀원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았다고 기록되어있다.

출입문 옆으로 에디트 슈타인 성녀를 돌에 새겨 넣은 부조가 있고, 아래 긴 사각형틀 안에는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 에디트 슈타인 박사 1938~1942’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1938년 마지막 날 밤에 가르멜 친지 의사의 차를 타고 퀵른 가르멜 수녀원을 출발하여 도착한 곳. 그리고 1942년 8월 2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정문 앞에서 끌려가신 것이다.

1층으로 들어가자 격자모양 창살의 작은 경당이 나온다. 왼쪽 벽에는 성녀가 에히트 수녀원으로 떠나기 위해 퀵른에서 생전 마지막으로 찍은 여권용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다.

경당 뒤편에 있는 여러 종류의 팸플릿 중에는 붉은 벽돌의 수녀원 출입구 위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 네 면에 새겨진 성인 성녀 중에 에디트 슈타인 성녀도 있다는 설명도 있다.



에히트 가르멜 수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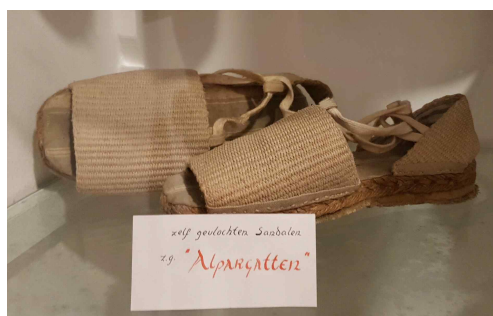
그리고 경당 뒤편 벽에는 성녀의 일대기

를 편집해 놓은 커다란 사진들이 있다. 성녀가 세 살 때의 가족사진, 에르나 언니와 찍은 사진, 브레슬라우 대학 전경, 후설 교수 사진, 멀리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보이론 수도원 전경, 파괴되기 전의 쾰른 수녀원, 38년도에 찍은 에히트 수녀원 전경, 성녀가 거주했던 수방... 많은 사진들이 한 액자 안에 설명과 함께 들어있다.

“그녀는 자기의 수방을 처음 봤을 때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생활하게 되는 가난한 개인 방을 보고 행복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중략) 하얀 벽으로 사방 3미터인 작은 방이었는데 벽에는 그리스도상이 없는 십자가와 아무 장식도 없는 성수 그릇과 액자에 들어있지 않은 가르멜회 성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오지그릇으로 된 대야와 작업할 때 쓰는 작은 상자와 책상 걸상이 가구의 전부였습니다. 방안 구석에는 간소한 침대와 짚이 든 깔개 이불과 거칠게 짠 담요, 그리고 갈색 이불 덮개가 있었습니다.”

성녀가 입회한 1933년 10월 15일 모습을 전해 준 당시 수련장 수녀님의 글이 떠올라 사진 속의 성녀의 수방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어디론가 통화를 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가이드 형제님의 안내로 출입문 밖으로 나오니 그곳에 작은 체구의 나이 지긋한 현지인 두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르멜 수녀님들과는 사전 연락이 되지 않아 수녀님들과의 만남은 어렵고 대신 이



에히트 슈타인 성녀의 샌들 Alpargatten/Alpargata

곳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봉사를 하신다는 두 자매님이었다.

그분들의 안내로 수녀원 정문 출입문 옆으로 난 작은 문을 따라 걸어 들어가니 좁고 환한 복도 끝에 작은 방 하나가 나온다. 우리가 모두 들어서자 방이 팍 찼다. 방은 4면이 전부 성녀와 관련된 사진을 넣은 액자로 빼곡하다.

에히트 수녀원 정원에서 언니 로사와 찍은 사진, 여고 재직 시절 학생들과 찍은 사진, 착복식 때 결혼 예복으로 차려입은 사진,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 등. 평소에도 여러 책과 자료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사진들이었다.

봉사자 자매님들의 설명을 듣고 방을 나오니 좁은 복도 오른편 유리관 안에 성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착복식 때 가르멜의 흰 망토, 그리고 목주와 함께 받았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녀의 샌들Alpargatten/Alpargata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유럽의 일정 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풀을 말려 수작업하는 샌들이라는 지도 신부님 설명이다. 모든 것을 그대로 놓아둔 채 떠나간 곳이니 어느 곳보다도 성녀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을 텐데 이곳 수녀님들과의 사전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 샌들 옆에는 액자에 놓여진 성녀의 친필 쪽지가 전시되어 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이드 형제님으로부터 이곳 에히트 시장님이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오고 있다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동양인으로서 이 마을을 방문한 첫 번째 순례 그룹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문득 십자가 요한 성인이 성화를 보기 위해 순례 길에 오른 사람들에게 대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런 은혜를 외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화 상을 통해서 내리시는 일이 매우 흔하다. 첫째 그 먼 데까지 가는 노력으로 사랑이 부풀고 정이 뜨

거워지라 함이고 들째는 주께서 몸소 하셨듯이 소음과 사람을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라 하심이다. 그러기에 순례를 하는 사람이면 때 아닌 때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때를 골라서 하는 것이 좋다.” (가르멜의 산길 제 3권 제 38장)

마냥 멀고 낯선 곳일 뿐인데 이곳의 시장님까지 우리를 반긴다고 하니 한 분의 성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편 교회 안에서의 ‘뜻밖의 마주침’ 과 ‘공감’ 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봉사자인 두 분 자매님의 안내로 수녀원을 나와 마을길을 걸어 10여 분, 마을 외곽에 있는 흰색 커다란 격자 창문이 인상적인 2층 건물에 도착했다. 문패에는 작은 글씨로 ‘에디트 슈타인 회관’ 이라고 적혀 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성지 순례를 온 방문객을 수용하고 있는데, 사진이 상설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커다란 도서관도 이용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에디트 슈타인에 대한 세미나 등 각종 연구발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에디트 슈타인의 삶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고 하니 성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 같았다. 하지만 이곳 ‘에디트 슈타인 회관’ 은 화요일 오전에 문을 연다고 하니 오늘 우리는 건물 안 곳곳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 하였다.

작은 실망감을 안고 회관 1층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젊고 호남형인 현지인이 다가와서 인사를 한다. 시장인 줄 알았던 그는 보좌관이라고 했다. 착한 미소를 머금은 젊은 보좌관은 우리와 초면 인사를 나누자마자 아내가 한국인이라고 자랑했다. 우리는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결혼한 지 9개월쯤 되었다면서 웃는다.

일행은 다시 ‘에디트 슈타인 센터’ 를 나와, 센터 가는 길에 보았던 마을 중심에 위치한 ‘에히트 성당’ 으로 향했다. 화창한 오후 녹음이 싱그러운 14세기 고딕 양

식의 성당(성 Landricus 성당) 마당 입구에는 성녀의 청동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성녀의 외모와는 많이 동떨어진 듯 표현되어 아쉬웠다.

사실, 품성의 깊이와 아이 같은 단순함을 동시에 담아 성녀를 형상화 시키는 건 힘든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들은 서로 모여 성녀의 흉상 앞에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천상의 모습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하게 느껴지는 성상들이 있다. 그럴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상 안에 계시는 천상의 한없이 낮고 낮은 겸손의 실체를 느낀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

청동 흉상 옆, 매끈한 검은 색 대리석판 위에 에디트 슈타인과 언니 로사를 기리는 글이 짧게 쓰여 있다. 마지막 줄에 1942년 8월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 작은 에히트 마을은 에히트 수녀원을 중심으로 성녀에 대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고딕식 성당에도,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에디트 슈타인 센터에도, 성녀에 대한 기억을 오롯이 담고 있다.

성당 안에는 성녀에 관계된 많은 팸플릿과 성녀의 흰 망토, 그리고 성녀가 지녔던 나무 십자가와 친필 쪽지, 묵주, 작은 손거울 등이 제대 옆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 유난히 순결하게 다가오는 흰 망토를 보니, 지닌 것 없이 빈 몸으로 서둘러 떠나야했던 그날이 떠오른다. 베스테르보르크 바라크에서 수녀원으로 보낸 편지에서 성녀는 새로 나온 성무일도를 부탁했었다. 놓아두고 간 망토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죽음 이삼일 전까지도 새로 나온 성무일도를 원했던 성녀의 편지를 읽었을 때의 마음이 같은 무게로 내려앉는다.

마을의 크기에 비해 규모가 큰 고딕식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오래된 성당의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는 성녀의 착복식 때와, 슈파이어 교사 시절, 그리고 가르멜 수녀일 때의 모습을 세 군데로 나누어서 작품화시켜 놓았다.

붉은색 신부님 제의 가슴에는 성녀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1독서와 복음 낭독이 끝나자 독서대로 나와 선 에히트 시장님의 환영하는 인사말이 이어졌다. 사실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곳 네덜란드 외진 마을까지 올 이유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성녀에 대한 기억을 알뜰하게 품고 있는 아담하고 평화로운 유럽의 작은 마을, 이곳에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는 이곳 시장님의 배려가 성녀에 대한 커다란 사랑으로 여겨졌다.

성녀는 아직까지 유럽에서도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순례를 통해 알게 되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진리를 갈망하는 성녀의 깊고 명쾌한 영성, 하느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적 헌신, 고매한 인격의 겸손함과 단순함에 감동을 받은 이들의 연구로 알려지셔야 하는 특별한 성녀라는 것을 순례를 통해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소박하고 진실된 언어로 전해지는 신앙이 있고, 깊고 깊은 데서 끌어올려져 차갑고 맑은 샘물 같은 언어로 전해지는 신앙이 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전하는 깊은 신앙의 언어를 마시는 우리가 갈증을 풀고, 성녀가 전하는 인류 보편적 사랑에 깊이 공감할 때 우리는 어느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께 가닿아 있게 될 것이다.

“생활한 믿음은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하느님이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지배하도록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십자가학문 p272, 윤주현 베네딕토 신부 옮김)

미사 중에 제대 앞으로 가서 에히트 시장님과 함께 모두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사가 끝난 후 성당에서 판매하는, 성녀의 모습이 새겨진 하얀 초와 작은 메달을 구입했다. 아주 작은 세 개의 메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파란색 배경으로 성녀의 사진이 들어가 있다. 두근거리는 마음이 ‘사랑’이었다.

성당 관리인인 듯 보이는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녀가 그려진 상분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짧은 보좌관과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햇볕 가득한 성당 마당에서 회원들이 이별의 아쉬움으로 짧은 보좌관과 전부 악수를 하느라 긴 줄을 섰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이별의 소리가 크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다. 유쾌한 목소리들이 햇볕에 잘 마른 무명천처럼 짹짹하다. 그것은 그대의 한국인 아내와 내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한국인 자매들의 축복의 인사였다.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근처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우리는 바로 독일 쾰른 시내에 위치한 쾰른 가르멜 수녀원으로 향했다.



에히트 시장님과 에히트 성당에서 한 컷

(다음 호에 계속)

* 공동체 이야기 *

수도원의 종소리를 들으며

인천 성 요셉 공동체



계양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인천 수도원에서 매일 월모임을 하고 있는 ‘인천 성 요셉 공동체’는 좋은 환경의 축복을 가득히 누리는 공동체이다.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수도원 경내에 있어서 수사님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원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수도원 뜰의 나무들도 함께 나이를 먹었다. 성모상 주변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우람하고 늙름한 느티나무, 수도원 뜰을 온통 분홍색 꽃구름으로 덮어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벚나무, 또 그 옆에 쏟아져 내릴 듯 무수한 흰 꽃망울을 거느리고 있는 목련이 봄이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연피정 때 거리가 먼 회원들은 수도원 피정 방에서 숙박을 한다. 다른 회원들이 집으로 가고 난 뒤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수도원 뜰에서 있으면 나무들이 내뿜는 깊은 침묵과 고요가 온몸으

로 스며든다. 이곳의 나무들은 여느 산골짜기의 나무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지녔다. 봄만 아니라 여름은 여름대로, 단풍드는 가을은 가을대로, 흰 눈에 덮인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 수도원 뜰은 아름답다. 거기에 본당에서는 듣기 어려운 종소리까지 곁들여 지니 이곳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롭고 풍요로워진다.

월모임 날, 수도원에서의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차를 타고 수도원 주차장까지 올 것이 아니라, 계양문화회관에서 내려 수도원으로 접어드는 길 입구에서부터 걸여가는 것이 더 좋다. 그 길 입구에 철문이 있는데, 이 문이 사찰의 일주문 역할을 한다. 일주문은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으로 “세속의 번뇌를 씻고 진리에 귀의하는 한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이 철문을 통과한 후, 길 양쪽에 늘어선 소나무와 벚나무, 수녀원 건물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정돈하면서 수도원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 좋다. 이 길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다른 세계에 왔다는 느낌이 들고,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저절로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이 된다.

우리에게 매달 강의를 해 주시고,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수사님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인천 재속회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도원 행사에 협조하고 있다. 김장, 대청소, 밭농사를 짓는 수사님들을 도와 풀 뽑기, 수도원 뜰의 잡초 제거, 대축일과 성모의 밤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원 뜰에서 자주 뵈는 수사님들을 통해 친근함과 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인천 성 요셉 공동체’는 1989년 9월 17일, 서울 가르멜 재속회로부터 분리 창립되었다. 처음에는 ‘인천 가르멜 재속회’였으나, 1999년 요셉 성인을 수호자로 모시면서 ‘인천 성 요셉 재속회’가 되었고, 2021년 다시 ‘인천 성 요셉 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년 ‘십자가의 성 요한 재속회’가 분리되어 나갔고, 2001년에는 인천, 광명 지역 회원들이 ‘예수의 테레사 재속회’로 분리되면서 ‘인천 성 요셉 공동체’는 부평, 부천, 신천 지역의 회원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다. 이 3개 재속회 외에 2008년 수원에서 옮겨온 ‘아기 예수의 테레사 공동체’까지 합쳐서 인천 지역에는 모두 4개의 공동체가 있다. ‘성 요셉 공동체’는 이 중에 맏이가 되는 공동체로, 올해로 창립 33년이 된다. 수사님들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항상 맏이로서의 책임감과 모범을 보일 것을 강조하셨다.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은 성소 식별도,

단계별 양성도 없이 출석만 열심히 하면 서약에 이를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신부님들에 의해 양성 교재가 집필되고, 체계적인 양성이 시작되면서 재속회가 모든 면에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피양성자들에 대한 성소 식별과 양성이 강화되고, 종신서약자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묵상 기도, 영적 독서, 독서록 제출, 구역모임과 월모임의 나눔도 똑같이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이 힘겨워하게 되었고, 여러 문제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참사회가 피양성자들은 물론, 종신서약을 받은 회원들까지 엄격하게 성소 식별을 적용하고, 재속회의 체제를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자, 여러 회원들이 탈퇴하였으며 온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이 시기에 성 요셉 공동체는 진정으로 가르멜 재속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계절의 순환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도 힘겨운 시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엄격한 회장 다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회장이 번갈아 선출되면서 나무의 나이가 늘어가듯 우리 공동체의 역사도 쌓여 갔다.

대부분의 회장이 전임 회장이 이룩한 성과를 잘 이해하고 물려받아 그 위에 한층 더 쌓아가다 보니, 2018년에는 한국관구 참사회 모임에서 우수 운영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난 2월에 사목방문하신 김형신 이나시오 관구장님께서도 공동체가 안정되어 보이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피양성자들은 양성 교재를 통한 양성 외에도,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기에 각각 공동체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강의하시는 신부님을 위해 책상 정돈과 음료수 준비하기, 성당

과 강당 소등, 성물판매 보조, 청소 검사와 신발장 정리, 화장실 수건 준비, 회원들을 위한 커피, 녹차 준비, 은경축, 연피정 등 각종 행사 때 보조하는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힘들기는 하지만 피양성자들에게 주인 의식을 심어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며, 회원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밖에 회원 수첩을 제작하고, 현화회와 제대회를 신설하였으며,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선종부를 재구성하였다.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은 단독회원 가정방문을 통해 선종회원의 가족분들과 친분도 있고, 장례절차를 잘 알기에 회원 선종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현재 총회원은 105명, 종신 서약자 54명, 단순서약자 4명, 수련자 4명, 청원자 3명, 단독회원이 40명이다. 우리 공동체는 오래된 공동체이다 보니 선종회원이 23분이 되어, 해마다 3월이면 선종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단독회원도 40명이나 되어 전체 회원의 38%를 차지한다. 세심하게 이분들을 돌보아 드리기 위해 4-5분씩 각 구역에 배정하고, 구역장이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로 근황을 파악하여 참사회에 보고한다. 단순기 회원들에게는 1년에 2번 단독회원을 방문하게 하는데, 이때 구역원들이 함께 방문하여 그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회원들과 친밀한 유대를 갖도록 노력한다. 또한 피양성자들에게 단독회원을 위한 영적 꽃다발을 과제로 주어 예쁜 카드에 담아서 회보와 함께 보내드린다. 단독회원의 영명축일에는 축하 인사를 담은 상분을 보내드려서 감동을 안겨 드리기도 한다. 2001년부터 2007년 동안은 신부님 강의 내용을 서기가 기록하여 단독회원에게 보내드리기도 하였다. 몇 년 전 가

족 없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선종하신 단독회원을 위해서는 임종을 앞두고 신부님을 모셔와 병자성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임종을 지켜드렸다. 선종하신 다음에는 기도하러 오시는 회원들과 본당 신자들에게 김밥, 떡, 과일, 음료수를 대접하여 본당 신자들에게 큰 표양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공동체는 2007년까지는 공동체의 날 행사로 성지순례를 주로 다녔는데, 2008년부터는 광주학생수도원, 마산수도원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충주 가르멜 수녀원, 서울 가르멜 수녀원, 천진암 가르멜 수녀원을 방문하였다. 2017년 공동체의 날에는 회원들이 오전에 함께 계양산 등산을 하고, 오후에는 수도원 마당에서 보물찾기, 풍선 터뜨리기, 어르신 낚시, 코스틸레이 등을 하며 모두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화기에애한 시간을 보냈다. 상품은 회원들에게서 기증을 받았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상품들이 모였다.



계양산 등산/ 공동체의 날

2018년 공동체의 날에는 명륜동 영성센터에 모여 오전에는 구역별 트로트 노래자랑을 하고, 오후에는 길 건너에 있는 창경궁과 창덕궁 경내를 돌아보았다. 트로트 노래자랑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동안 경건한 성가만 불러왔던 회원들이 술렁거렸다. 입에 익지 않은 트로트에다가 춤까지 곁들여



명랑운동회/ 공동체의 날

야 하니, 많은 회원들이 난감해 하였다. 그러나 요셉 성인을 닮아 순명 정신이 뛰어난 우리 회원들은 곧 마음을 추스르고 구역장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보며 각자 노래 연습과 춤 연습을 하였다. 어떤 구역은 함께 노래방에 모여서 음을 맞추고 동작까지 맞추어서 공동체의 날 일사분란한 모습으로 우수상까지 타게 되었다.

구역마다 통일된 색깔의 옷과 머리띠, 선글라스, 기타 소품들을 사용하여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나, 이날의 백미는 어떤 형제님의 뛰어난 분장술이었다. 여성용 한복을 구해 입고, 코믹한 화장을 하고, 구성진 노래와 춤으로 좌중을 압도하였다. 심사를 위해 초빙되신 엘리야 신부님께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고, “그동안 내가 수도원 강의실과 성당에서 보았던 회원들 맞아?” 하는 표정을 지으셨다.

금년 5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공동체의 날 행사가 재개되었다. 아직은 대규모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구역장 인솔하에 구역별로 B(BUS) M(METRO) W(WALK)를 이용하여 서소문 성지에 모여, 박물관과 성지를 돌아보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우리 공동체는 부부회원이 많고, 형제님들이 공동체에서 큰 역할을 한다. 해마다

가르멜회 전례력을 만들어 성무일도 바치는 데 큰 도움을 주시는 형제님, 뛰어난 학식으로 관구일에 협조를 하시는 형제님, 또한 월모임 날 일찍 와서 냉온수기 위에 커다란 물통을 거꾸로 얹어 놓는 힘든 일을 흔쾌히 하시는 형제님, 귀중한 연차 휴가를 수도원 김장과 대청소, 기타 행사 때에 쓰시며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형제님들께 수사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다. 그뿐 아니라 제11대 총회에서는 우리 공동체 처음으로 형제님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자매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체에서 형제님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큰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마치 돌아온 아들을 감싸고 있는 램브란트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형제님도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겸비하여 그 두 손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이밖에도 구역장, 양성책임자, 서기 등 여러 역할을 형제님들이 맡아 공동체를 도와 주신다.

또한 역사가 길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재속회원이 되는 복된 가정들이 있다. 1970년대 초, 초창기 수사님들이 계양산 자락에 자리 잡으시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렸을 뿐 아니라, 곤궁한 시기에 가까이 사시면서 ‘베타니아의 집’이 되어드렸던 은인 회원의 아드님과 며느님이 대를 이어



풀뽑기

서 우리 공동체 회원이 되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님의 뒤를 이어서 떠느님이, 친정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따님이 재속회원이 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는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온갖 일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진진하려면 서로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며,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마음을 털어놓음으로써 애덕이 더해지고 그밖에 숭한 선익이 있다.”(자서전 7, 22)고 하셨다. 우리 “인천 성 요셉 공동체” 회원들은 “깊은 신학 지식이나 고매한 교양, 거룩한 신비 체험 또는 엄격한 금욕생활”이 아니라 ‘서로 사랑’ 하며, 요셉 성인을 본받고자

노력한다. 계양산이 수도원을 품고 있듯이 늘 우리를 품고 계시며 전구해 주시는 요셉 성인의 그 의로움, 자비로움, 신중함, 성실, 겸손, 침묵, 순명, 청빈, 자아 이탈, 헌신과 봉사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닮아서 그분 인품의 향기를 풍기게 되기를 우리들은 소망한다.



성 요셉 성인 / 인천 수도원



문화유적 탐방-창경궁/ 공동체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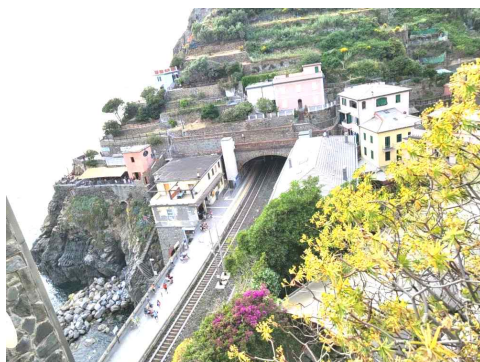
* 하느님의 포도밭 일기 *

리오마조레 오르막, 그 끝엔...

박지현(성체성혈의 요셉피나)/ 서울 성 요셉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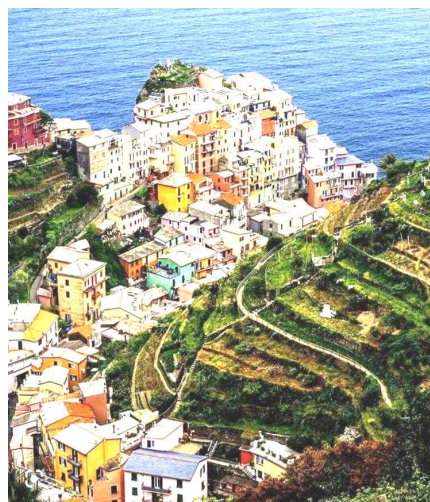
이태리 순례 10일째,
오늘은 피렌체에서 친퀘테레로 이동한다.
피렌체 두오모에서 아침 미사를 봉헌하고
대성당 옆, 조토의 종탑을 마지막으로 감상했다.
피렌체만의 매력에 흠뻑 취해서
지낸 3박 4일, 우피치 미술관 관람, 베키
오 다리, 베네치아 당일 여행, 그리고 피
렌체 두오모 광장에서의 추억! 다시 캐리
어를 밀면서 피렌체 산타 노벨라 역으로
향했다. 버스와 트램이 사이좋게 역 앞을
지나다니며 따뜻한 향기를 품어내고 있었
다. 역 안엔 사람들로 붐볐다. 전광판에
뜬 번호 2를 찾아 들어갔고, 기차가 막 들
어왔다. ‘굿바이 피렌체!’

오늘의 목적지는 라스페치아 역이다. 가
는 중간 피사 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았
다. 하지만 우리는 피사의 사탑을 패스했
다. 라스페치아(La Spezia)역. 친퀘테레를
이어주는 거점도시다. 친퀘테레(Cinque
Terre)는 이곳에서 북쪽으로 14킬로미터
떨어진 첫 마을 리오마조레 마을부터 끝
마을인 몬테로소까지 25킬로미터 정도 구
간에 들어서 있는 5개의 수백 년 된 절벽
아래의 해안 마을이다.



라스페치아역에서 우리 숙소가 있는 리오
마조레까지는 15분 걸린다. 여기 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 캐리어를 운반하
는 게 걱정이었다. 이태리 남자에게 부탁
하니까 흔쾌히 들어서 지하도를 건너 맞은
편 타는 곳까지 옮겨주었다. 남에게 부탁
을 하는 게 늘 불편했던 딸, 여행 내내 불
만이었는데, 이젠 별말이 없다. 어미의 성
향이 그러려니 이해를 한 건지, 얘기해봐
야 소용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님 자기가
통제할 영역이 아님을 인식한 건지 모르겠
지만 말이다.

리오마조레까지 금방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닥거렸다. 휴양지로 유명한 이곳에선 좀
쉬고 즐기며 체력을 보충하리란 계획을 세
워 뒀다. 그런데 웬걸! 기차에서 내리니 캐
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도를 건
너가야 하는 상황. 그러고는 동굴 같은 긴
터널을 300미터나 더 걸어서 나가야만 리오
마조레 마을로 올라가는 입구가 나온다.



여기가 끝이라면... 이태리의 대낮은 땀별이 따갑다. 가만히 서 있어도 더위에 압도되는 한낮에 캐리어 밀면서 오르막을 올라가야 한다. 언덕 끝 지점에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행 중반에 다다르며 체력이 거의 소진되었고, 나는 기관지염 약을 계속 복용하며 버티던 중이었다. 택시를 타볼까도 했지만, 눈앞엔 택시가 없었다. 또 집에서 이곳 숙소를 예약할 때, “엄마, 오르막을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 괜찮을까?”라고 묻던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내가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마지못해 “조금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가보자.”

내 캐리어를 밀면서 올라갔다. 언덕이 가팔라질수록 숨이 차고 등까지 결려서 죽을 것 같았다. 이러다 쓰러지면 순례고 여행이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진다. 딸도 헉헉거리며 앞서 가다가, 나를 보면서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자기도 힘들 텐데 내색은커녕 엄마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 안쓰러웠지만 지금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 코가 석자였다. 하다하다 마침내, “아이구 어떡해. 숨을 못 쉬겠어. 이게 웬일이야.” 하고 주저앉았다. 그런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남들 시선



에 예민한 딸, 내 캐리어까지 밀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둘 다 땀으로 범벅돼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걷는 거면 택시를 부르든지 마을버스를 타어야지 이게 뭐야.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잘해도,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숙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다면 이렇게 고생은 안 했을 거잖아.’ 하고 화내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마른침과 함께 삼켜버렸다. 잘해보려다 그런 거니까. 언덕에 올라와 한숨 돌린 후 주변을 보니, 이게 웬일이래. 작은 성당이 숙소 바로 앞에 있었다. 스무 걸음 정도만 걸으면 당을 거리였다. 기대하지도 않은 성당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일순간에 웃음이 나오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힘들게 올라온 보상이라면 이런 고통쯤이야 암 것도 아니지요. 잠깐 들어가서 감실 주님께 인사드리며, 우리 모녀가 너무 지쳐서 힘드니, 안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딸이, 모르면 좀 묻고, 무거우면 들어 달라 하고, 힘들면 도와 달라 청하며 인생을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빌었다. 다행히 숙소엔 방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했다. 고생 끝의 낙이었다. 우리가 걸어 올라와서 지쳤다는 말을 듣던 숙소 호스트 왈, 기차역에서 마을 위까지 타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알려줬는데 왜 안 타고 걸어 올라 왔느냐고 했다. 그에 대한 딸의 피드백은 이랬다. 사실 구글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약도가 잘 인식이 안 돼서 모르고 지나쳤는데, 거기서 내가 너무 지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단다.

기차역에서 물어봤으면 긴 터널을 한참 걸지 않아도 되고, 오르막길 700미터를 캐리어 끌고 올라오는 불상사는 없었을 터. 나는 나대로 딸이 검색을 다 해냈을 거고 또 남에게 물어보는 걸 싫어하니 눈치가

보여 나설 수도 없었다. 너무 눈 밝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힘든 법! 발 빠르게 검색하고 구글 지도에만 의지했던 딸과, 그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선불리 개입하지 못한 어미의 직무유기 탓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얼른 도움을 청했다라면 이리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지도에만 의지한 것 같았던 딸의 자성 섞인 목소리가 알갭게 맴돌았다. 좀 쉬다가 숙소 앞에 있는 성당에 들어갔다. 순간, “어머” 하고 놀랄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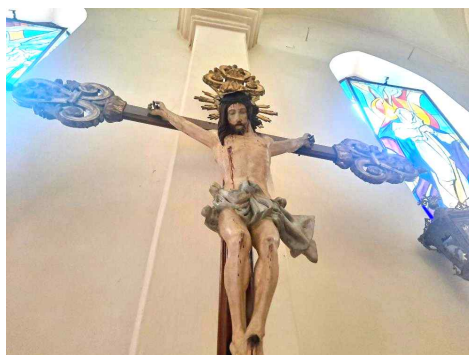
제대에 성체를 현시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미사와 함께 성시간을 하는 중이었다. 신부님과 동네 신자들인 듯한 8명이 전부였다. 성체를 바라보며 묵주기도를 따라 했다. 이태리 말이어도 ‘마리아’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서 바칠 만 했다. 성체로 현존하시는 주님을 성모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고 행복했다. 주님께서 지친 내 몸과 마음에 오시어 사랑의 물을 부어주시니, 내 안의 정원이 축축해지며 생기가 돌았다. 무거운 캐리어 들고 언덕길을 오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매질로 처참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타 언덕을 어떻게 오르셨을까? 가파르고 험난한 그 언덕을 어찌!

작은 성당의 십자가와 성체에 눈길을 모으며, 그분의 고통을 위로해드렸다. 나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이토록 크실 진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 계획하고 해결하려고만 한다. 당신의 자녀들이 애써 뭔가를 이루려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려 내미신 손을 거두시며, 가슴 아파하실 것 같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물속으로 손을 뻗으시며 베드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이끌려 나오길 바라셨을 뿐. 주님의 지상 순례 길이 얼마나 지치고 고단했을지 정말 뼈저리게 공감한 성시간이었다.

성당에서 나와 야경이 멋있는 마나올라로 향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둘레 길로 걸었다. 그 끝엔 커다란 느티나무와 벤치가 있었다. 바로 그 지점에 숙소 호스트가 말한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세상에나 맵소사!” 언덕 위에서 아래 기차역까지 산을 직선으로 깎아서 설치했다. 편하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건만, ‘억울하다 억울해!’ 소화 테레사 성녀의 엘리베이터 영성이 바로 이런 거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어찌 완벽하고 높아질 수 있으랴. 그러느니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처럼 예수님의 팔에 매달려 그분이 올려주시기를 청하는 편이 나을 터. 예수님 두 팔이 소화 테레사 성녀에겐 엘리베이터였던 거다. 그 엘리베이터가 여기 딱하니 대령하고 있었는데, 우린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죽을힘을 다해 그 언덕을 올라온 거다. 주님께서 리오마조레 언덕 끝, 작은 성당에서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얘들아, 얼른 타거라. 나랑 함께 올라가자.” *



* 가르멜뜨락 *

친서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차 뒷좌석 밑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創立史

금장의 글자가 선명한 『創立史』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누구의 책인지 ‘알 수 없어요.’ 혹 <비밀사서함>이라 부르는 단골 서점, 헌책 코너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곰곰 생각해보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 재판된 같은 책이 있지만, 우연히 귀한 고서를 만난 듯 흐릿함으로 맨 뒷장 후기부터 거꾸로 읽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친서를 대하듯 예전에 읽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울림입니다. 그중 마차를 타고 계신 사진 속 그림에 오래오래 눈길이 마음이 머물습니다.

그림 속의 글입니다.

LA VIDA ES UNA NOCHE EN UNA MALA POSADA
인생이란 주막(여관) 집에서 지내는 밤이다.
- VENTA DE ALBINO 알비노 주막집(여인숙)

우리 공동체 초창기부터 같은 구역이었던 한 자매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으로 분리된 성 요셉 공동체로 옮겨갔지만, 수도원 축일 미사나 본당 금요일 낮 미사에서 반갑게 만나기도 합니다. 이젠 부부 회원으로 요셉 성인의 보호와 본인들의 세례명인 올리엠타, 암브르시오의 첫 글자를 따서 J&JA 운송회사를 설립 장거리 출장을 다닌다고 하네요. <움직이는 기도소>라며 가르멜 문장이 선명한 트럭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형제님과 교대로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에 몸집도 자그마한 자매님이 어떻게 대형 트럭으로 대륙을 횡단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기도소가 어느 곳을 갈지라도 안전한 여정이기를 아기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낮선 길을 가다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나그네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 동행이 있는 여정

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사모님의 심장 꿰뚫리심을 받은 방에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 영혼에 새겨 주신 친서는 오랜 세월의 강을 흘러 당도했습니다. 사방 서가에 꽂힌 아직 읽지 못한 친서도 많지만, 머리맡에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서한 자료집에 친필 서한 원문은 어찌 이리 정갈하고 아름다운지요. 심심산골 숨어 사는 신자들을 찾아 돌보시던 목자, 해마다 7천 리 밤길을 걸어 다니시다 탈진하시어 병사하신 백색 순교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신부님의 친서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그 길을 뒤따르던 선조들의 발걸음이 선연히 펼쳐집니다. 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미사에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가슴을 훑어 내리던 물음에 슬피 생가 성지에서 보내온 답신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21) 조선에서 보내온 친서입니다.

저에겐 오래된 친서를 담아 둔 비밀 상자가 있습니다. 위로와 축하, 마중 가는 설렘의 기쁨과 작별의 슬픔, 시와 강론 말씀 등 희로애락으로 엮어진 정감이 담겨진 친필입니다. 때때로 펼쳐 마주하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여 현존으로 다가오는 친서. 그중엔 부치지 못한 편지도 있습니다. 어느 날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재가 된다 하여도 걸어온 자취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거닐지 않으시는 길
 주님이 거처하시지 않는 집
 주님이 가꾸시지 않으시는 정원은
 가시와 엉겅퀴로 불에 태워지는

주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쟁기로 영혼의 밭을 갈고, 거기에다 영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셨습니다. 그 정원은 이제 자기 주인

이신 하느님을 위해 지극히 달고 맛 좋은 각가지 과일을 맺어 줍니다. 미망에 헤매는 영혼 깊숙이 새겨주시는 친서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길을 잃고 헤매지 않고, 먼 길 가는 도중 주막집에서 곤한 잠을 재워 주실 것입니다. 여린 숨 쉬는 가슴에 놓아주신 임금님의 친서는 십자가입니다. 무릎 꿇어 현양하는 십자가 아래 깊은 잠으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머무시는 집, 주님이 가꾸시는 정원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성찰하는 한밤에 알려주시는 친서엔

**은갓 내적 능력으로 은 생애를 바쳐
 하느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가르멜인은
 어느 곳에도 하느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일지니.***



* 가르멜 트랙 *

우리 서로의 꽃이 되고 기쁨이 되리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코로나 앓고 난 후유증의 하나로 나는 참도 많이 피곤하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생겼으니 자다 깨다 불면증이 조금은 줄어들고 푸욱 자기도 한다. 몸 상태가 나른하고 녹작지근하니 가라앉지만 예약해 놓은 여행. 함께 가자는 짝꿍인 남편이 언제 또 맘 변할지 모르니 말없이 따라나선다.

결혼생활 중 유일하게 궁합이 맞는 일 중 하나는 여행이었다. 삶이 지루하고 싱거워서 재미없고, 안 풀려서 따분하다가도 길을 나서면 다 풀린 것 같은 달콤한 사탕이 여행이었다. 일상으로 찌든 내 마음과 영혼을 벗겨내어 속살이 다시 보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행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게다가 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낯선 곳을 가지 않았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인연도 만나 가슴 속 깊이 그리움을 하나 더 만들게 된다.

우리 세대에서 최고의 신혼여행지는 제주였다. 그 시절에는 신혼여행에 관한 비용은 신랑의 몫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그 시절, 아마도 주머니 사정 역시도 답답했을까. 조용하고 말 없는 신랑은 아마도 처음부터 속리산이었던 듯. 묻지도 못했다. 살기 바빠서 잊고 있던 그곳, 제주도에 대한 로망은 늦은 저녁처럼 뒤늦게 아마도 예닐곱 번은 간 듯하다. 간호사로 재직하

는 시대 조카의 안내로 일주일씩도 있었고 차암 많이 오래 머무르며 섭렵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깜 놀라게 고생했으니 만만한 제주로 GO, GO...

요것도 코로나 후유증일까? 아님 오랫동안 바깥나들이를 멈춘 탓일까. 집을 나서면서부터 어리바리하다. 우리 집은 공항에서 꽤나 거리감이 있으니 일찍 나서야 하는데 어인 일인지 며칠 전부터 몸 상태가 더 뒤숭숭해지니 늦장을 부렸다. 택시 타고 가면 되겠지 하면서. 카카오 택시 부르는 방법을 아들들이 번갈아 가르쳐 주었던 만 손은 굼뜨고 지나가는 빈 택시도 눈에 많이 띄었던 만 절대 서지 않았다. 자괴감과 함께 마음이 바빠졌다. 더구나 주일이니 마을버스는 내 맘처럼 바쁘지가 않다. 큰아들이 ‘모셔다 드릴까요?’ 할 때 모른 척 ‘그러럼.’ 하고 말 것을... 어쩔거나!! 뱅기는 놓치겠구나. ㅈㅈ.....

어디에 두었는지 찾아지지 않는 물건을 찾고자 할 때면 안토니오 성인을 목메어 불렀는데 이번에는 여행자의 보호자이신 크리스토폴 성인을 애닦게 찾아본다. 마을버스도 지하철도 배차시간에 착오가 난 듯 놓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바로 우리를 태워주었으니 틀림없이 기도 덕분이였다. 비행기는 정확하게 우리 옆집보다도 더 빠르게 제주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긴장감이 풀린 나는 더위 먹은 강아지처럼 지쳐버렸다. 그럼에도 숙소인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에서 이미 우리 여행의 상서로운 징조는 보였다. 가이드가 호명하는 그룹 중에는 8명, 6명씩 떠들썩하니 함께하는 특유의 분위기로 들떠 있다. 숙소에 도착하여 엘베를 타니 노원구의 8명의 아집씨들이 소란스럽다. 하여 한마디 해 본다.

‘오늘 이 동네 들썩들썩하겠네요.’ 하니 그중 한 명이 나를 흘끗 보더니 하는 소리. ‘만만치 많으시겠어요.’ 부지런한 내 입이 다물어졌다. 다음날부터 말수 없는 짝꿍보다는 8명, 6명이 내 일행마냥 더 가까워졌다. 나도 함께였으니 점잖으신 어르신이 시끄럽다고 눈살 찌푸리시기에 건방지만 한 마디 보태드렸다. ‘한두 명이 오면 이렇게 흥이 나겠어요. 오랜만에 수학여행 온 기분일 터이니 예쁘게 보아 주시어요.’

이 말은 틀림없이 나 자신에게 거는 일종의 최면술로 행복어(幸福語)였다.

이 친구들 사진 찍는 것도 시끌벅적했다. ‘친구야! 이렇게 요렇게 해 보렴.’ 하면서. 나도 한 번쯤 저렇게 해 보았으면 하던 지금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야시꾸리한 포즈를 하는데 내 눈은 부러움으로 탄성을 지른다. 내 표정을 첫날부터 잘 읽어내던 젊은 친구들. 우리에게 명령으로 권한다. ‘어르신들도 한 컷 찍으셔야지요.’ 제주 바다 위 요트에서 태평양을 배경으로 37명 00여행사 일행의 금쪽같은 박수를 받으며 그 친구들 맘에 드는 표정으로 맘껏 뽐내어 본다. 또 수원 권선성당에서 함께한 6명의 교우들과도 ‘테레사, 루시아...’ 하면서 까멜리아 정원의 수국처럼 기쁨으로 친구 아닌 친구처럼 활짝 피어난다.

흰머리 우리 내외와 연배가 비슷하다며 자신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이들. 사랑에 취한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주님의 포

도발을 노닌다. 나리꽃 같은 그대, 사랑하는 이를 찾고, 찾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향기로운 님을 찾는 이 영혼들을 아가서의 연인으로 어루만지고 보듬어준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중간중간 포토존에서는 꼭 사진을 남겨야 한다며 찍어주는 가이드 언니도 한마디 한다. ‘아니 웬 인기가 그리도 많으세요.’

나도 자랑 안 할 수가 없다. ‘오호!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랍니다.’

지하철 옆자리에서 만난 분. 50분 비행기이니 10분에만 도착해도 넉넉하다며 초조함에서 여유로움을 찾게 해주며 위로로 도움 주신 이름 모를 어르신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셨을까. 우리 누구나 이웃의 성령님이 되어 줄 수가 있을까. 천천히 생각해 본다. 말은 생각의 외출복이고 표현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인 것을. 코로나로 받은 여러 가지 선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따뜻한 말은 쌓을수록 덕이 되며 좋은 것도 슬펐던 일도 모두가, 쓴 화살처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재빠르게 스쳐 가 버린다는 것을. 보도 못한 어머니 데레사가 다시금 보고파진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 가르멜 트랙 *

속단의 함정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벳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우리 아파트 앞 동네는 평촌입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곳인데 새벽마다 “꼬끼요” 소리가 들리고 고추며 참깨를 베어다 가지런히 세워 말리는 모습이 정겨운 곳입니다. 요즘 나는 이 정겨운 곳을 지날 때면 가슴을 치며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그곳에는 밭에다가 울타리 삼아 덕을 세우고 무성하게 엉켜 자라는 오이 넝쿨이 있습니다. 지나치며 보면 넝쿨뿐인 것 같지만 눈여겨보면 통통한 오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고 어떤 것은 나이가 차서 노각으로 위상을 뽐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노각이 좋다는 영상이 뜬 후 집집마다 노각을 심은 집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배 아픈 사연을 고백합니다. 지난봄 우리 밭에 오이 세 포기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그늘을 피해서 한갓진 곳에 터를 잡아 거름을 두둑이 내어 비닐을 씌우고 정성을 들였지요. 울여름 오이 냉국을 푸짐하게 먹으리라는 기대로 흐뭇했습니다. 세 포기 오이는 오순도순 서로 격려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우리가 아가들을 키울 때 재롱에 녹아드는 어미처럼 나는 새벽마다 들러 아침 인사를 나누며 눈을 맞추었지요. 오랜 가뭄 끝 비가 내린 날 밭에 들어서니 오이 세 포기 중 하나가 100미터 경주를 뛰는 선두 아이 모양 세뿔 썸 거리를 둔 채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 아이는 남다른니다. 우선 대궁부터

굵기가 환삼덩굴처럼 두툼하고 기세가 당당합니다. 거기다가 마디마다 노란 꽃을 서너 송이씩 피우는데 꽃잔치입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들여다보니 당찬 줄기의 포복으로 잡초들도 슬금슬금 피하는 눈치입니다. 이러다가는 100여 평 소나무밭을 다 잠식할 듯한 기세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조화 속인지 눈 씻고 보아도 오이가 달리는 기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정작 비리비리한 다른 오이 두 포기는 아기 손가락만한 오이를 매달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평촌마을 오이덕을 슬금슬금 훑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들여다보다가 주인과 마주치면 민망할 것 같아서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꽃만 피우는 모양새도 같습니다. 속으로 나는 한 포기지만 이 집 올 오이농사 망쳤다고 오지랖 넓게 혀를 찼지요. 그러면서 종묘사까지 들먹이며 농정이 부실하다고 성토를 했거든요.

드디어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젠가 저 뎨가 기다려 봤지만 소식이 없자 더는 두고 볼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어느 새벽 그 풍성한 오이를 뽑아냈습니다. 길이가 십 미터도 넘을 듯한 오이 넝쿨은 해가 돋자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땅이 아깝다고, 다른 작물에 폐가 된다고 부글거리던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촌마을 오이덕 주인도 얼른 뽑아내고 가을오이를 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제넘은 생각을 했지요.

그 사이 6월에서 7월로 계절의 옷이 바뀌자 모든 작물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결실을 내기 시작합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려 얼굴이 붉어지고 가지, 고추가 고랑까지 접수합니다. 상추는 나풀거리고 듬직한 케일도 넉넉합니다. 아마도 우리네 식탁이 가장 풍요로운 때가 바로 이때일 겁니다. 주인이 작물을 위해 흘리는 땀이 한 종지라면 열매로 보답하는 결실은 한 광주리가 넘습니다. 이때 농부의 가슴은 감사로 가득하지요. 넘치는 축복에 가슴을 열고 앞집 옆집에 푸성귀를 돌리며 기쁨을 나누지요. 밭고랑에서 드리는 땀의 기도가 가장 절절할 때입니다.

7월 중순이 넘어서자 복날은 다가오고 폭염이 계속됩니다. 입맛까지 까칠한 삼복 더위에 지구 온난화까지 들먹이며 사람들은 나른해집니다. 그나마 새벽 걷기도 안 하면 더 까부라질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나갔지요. 마침 오이덕 주인이 나와서 풀을 뽑는 중입니다.

“이 오이는 넝쿨만 자라는 모양이지요?” 내 말에 주인은 성큼성큼 오이덕으로 나와서 잎사귀들을 들춰내며 “여기 보세요. 저기도요,” 주인이 가리키는 곳에는 파란 오이들이 마디마다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은 의기양양해서 이제부터 시작하면 서리가 내리도록 따 먹을 거래요. 그 오이가 바로 노각품종으로 개발한 오이라네요. 아 빨싸, 무식쟁이 농사꾼이 이미 작살 낸 오이가 노각이라니... 이러니 멀쩡하던 배가 아픈 것을 나무랄 수 없지요.

속단의 결과가 얼마나 사람을 허망하게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채소한 포기의 일생을 작살낸 것이 이리 속상한데 여태까지 살아오면 사람 관계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기르며 또 가르치

며 얼마나 많은 속단으로 상처를 주고 장래를 망치게 하는지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유능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아이의 소질과 재능을 키우기보다 실질적인 사회인으로 부모의 기대치에 맞게 키우려고 속단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래전 문학을 하겠다고 찾아온 젊은이에게 왜 글을 배우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멋있어 보여 그런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배우나 가수가 되는 게 좋을 거라고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럴 수도 있으려면 단칼에 잘라버린 속단이 그 젊은이에게 평생 회한을 남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이뿐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인류를 책임질 사람은 잡초를 가지고도 먹을 것을 만들어 내고 인류를 망칠 사람은 먹을 것을 가지고도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요즘 이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찌릅니다. 그럼에도 루카 복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묵상하며 부디 자비로우신 나의 주님은 포도 재배인이시니 조금 더 기다려주실 것을 믿고 무식한 농부는 오늘도 찬미 주님! 입니다.*



2022년 11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제42장 해설: 이 길의 마지막 여정을 위한 마지막 수칙들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이 기도가 간직한 청원들은 악(惡)을 비롯해 삶에서 드러나는 악한 일들 그리고 악마에 직면해서 드리는 호소와 더불어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 청원에는 마지막 결어로 “아멘”이란 말을 늘 첨가한다.

‘아멘’은 “예”를 의미한다. 그것은 성부를 향한 기도가 내포한 확실함과 그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그것은 예수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분은 우리의 ‘아멘’, 즉 성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예’로써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하는 분이자 충실한 증인이시며 우리의 진실을 대변해 주는 분이시다(묵시 3, 14).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이라는 이 두 마디는 『완덕의 길』의 가르침을 날인(捺印)하는 마지막 말이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도 전체를 “아멘”과 함께 종합하는 것, 이 모두는 성녀가 『완덕의 길』 내내 나눈 기도 교육의 마지막 고리이다.

1. 예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신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성녀는 예수께서 이 마지막 청원 기도를 드리실 때 그분 영혼 안에 피어났던 바로 그 감정으로 자신도 들어 올려지길 바랐다. “우리를 구하소서!” 기실 이 기도는 예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

“그분은 얼마나 이승의 삶에서 지치셨

습니까”, 성녀는 바로 이 때문에 예수께서 성부로 하여금 당신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 성부께 청하셨다고 말한다.

“주님의 전 생애는 끊임없는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1절).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대한 무수한 죄악, 허구한 인간들의 멸망!” (상동).

예수님의 청원은 이 모든 것(삶, 죽음, 피곤, 죄 등) 너머에 그 유일한 원동력으로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적지 않게 인정 있는 사람으로서도 견디지 못할 일이라면, 무한정 무한량의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야 오죽하셨겠습니까?” (상동).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기도가 ‘사랑’과 ‘바람’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기에 아버지께 그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라고 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천국의 상속자이신 만큼, 그 나라에 들어가 쉬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상동).

이렇듯 예수께서는 삶의 피로, 죽음, 인간의 악행들을 보시고 성부께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말씀드리면서 사랑과 바람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즉 영원한 보화에 대한 ‘바람’,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보화를 청하기 위한 ‘사랑’이 그것이다.

2. 테레사 역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성녀는 예수님의 감정을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정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알려 주었다.

-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

신을 해방시켜 주십사 하는 청원이었다. 이뿐 아니라 성녀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절대적인 선(성부께로 돌아감)에 대한 원의의 고삐를 조여 달라고 청했다. 이러한 원의는 진정한 기도에서 나오는 꽃이자 열매이다. “커다란 열망, 오롯한 결심을 가지고 관상가들이 이렇게 비는 것은 기도 중에 하느님께서 내리신 은혜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소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

- 성녀가 느낀 피곤은 두려움의 그늘이 그것이다. “주여, 내가 정말 못 견딜 일은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뜻을 당신이 기꺼워하시는지, 이것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2절).

- 테레사는 이승의 악이 다음 두 가지에 있다고 주님께 아뢰었다. 1) 삶은 “보다 많은 선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골치 아픈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이승에서 보는 것들은 모두 암담합니다.” 2) 두 번째로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지니신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우리의 뜻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뜻은 영원한 것을 사랑하라 하시건마는, 우리는 이승에서 다함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하고 숭고한 것을 사랑하라 하시건마는, 우리는 이승의 낮고 낮은 땅의 것을 사랑합니다. 또 당신은 오직 안전한 것만을 사랑하라 하시건마는, 우리는 미심쩍은 것만을 사랑합니다” (4절).

- 우리가 이런 삶의 함정 때문에 우롱당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그분께 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께 이를 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겨 드려야 한다.

3. 『완덕의 길』 후기

『완덕의 길』 마지막 페이지에 독자들 과 더불어 대화하는 형태 안에 담긴 후기

(後記)로서 거기에서 성녀가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수칙들이 담겨 있다.

첫 번째 수칙(5절)은 성녀가 「주님의 기도」를 다시 보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냈다. “자매들이여, 아마도 주님은 여기에 들어 있는 그 흐뭇진 위로를 우리가 알아들으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가르침을 뽑아내고 이와 함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에서 성녀는 이별의 인사와 함께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책을 쓴 의도들에 대해 설명했다. 성녀는 이 작품을 쓰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도구임을 깊이 느꼈다. 성녀는 작품을 쓰는 내내 진정한 기도의 스승은 주님이시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그분께 이 책에 대해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녀는 이 책을 신학자에게 보여 주어 검토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자 했다. 성녀는 자신의 작품이 신학의 잣대에 따라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랐다.

이 책의 후기는 다음과 같은 영광송과 더불어 끝난다. “주여,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좋은 것이 오로지 당신께로부터 오나이다. 아멘.” *

-가르멜 총서

“성녀 테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에서

《구역모임용 자료 안내》

* 「완덕의 길」 영적 나눔은 이번 9월호로 마칩니다.

* 10월호 구역모임 자료는 9월호에 실린 총장님 서한으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호에 게재하겠습니다.

* 11월호부터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덕행과 영성’을 주제로 자료가 게재됩니다.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이해분 성모성심의 아네스



- . 선종일: 2022년 7월 25일(향년 87세)
- . 인천 성 요셉 공동체

- * 김기열 아기예수의 필로메나
- . 선종일: 2022년 7월 29일(향년 92세)
- . 대구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 * 오명선 성모성심의 보나
- . 선종일: 2022년 7월 31일(향년 92세)
- . 서울 예수성심의 성녀 데레사 마르가리타 공동체

종신서약

- * 대구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6일
- . 회원: 김명희 아기예수의 안나
김양숙 십자가의 아델라

은경축

- * 청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 날짜: 2022년 7월 25일
- . 회원: 김재순 성삼의 모데스타
박정경 엘리야의 엘리스벳
강복자 성모성심의 아가다
곽한춘 성삼의 아가다

- * 인천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2년 7월 4일
- . 회원: 김재경 성모성심의 글라라

수도회 소식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10월 14일에는 7층 강당에서 합니다.**
- 일시: 9월 16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6)/ 10월 14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7)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가르멜수도회 상설고해소

일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9/6, 9/20, 10/4, 10/18) 오전 10-12시, 오후 2-6시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성시간

- 2022년 9월 24일(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지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Oración mental’을 ‘묵상 기도’로 통일

남자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Oración mental’을 ‘묵상 기도’로 쓰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재속 맨발 가르멜회 각 공동체에서도 ‘정신 기도’, ‘마음 기도’라는 용어 대신에 ‘묵상 기도’로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봉쇄 수녀원의 재건축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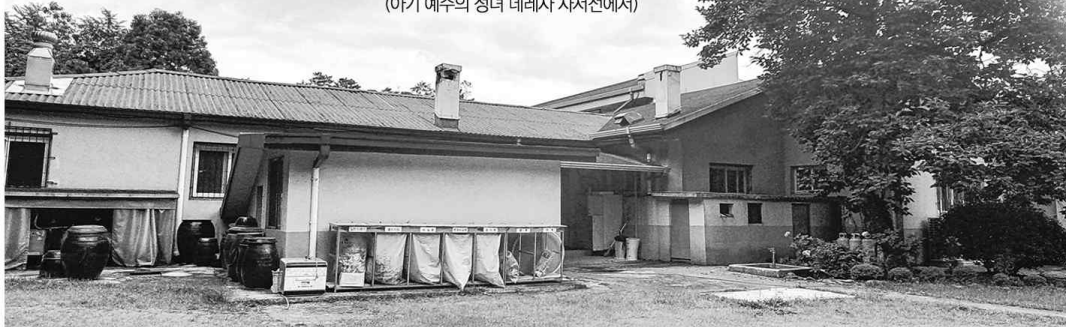
저희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주보 성녀로 모시고, **기도와 관상 생활**의 증거를 통하여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1975년 2월 5일에 설립된 **성좌 설정 봉쇄 수녀원**입니다. 설립 당시 부족한 건축비용으로 인해 최소한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후 비용이 생기면 견고하게 다시 짓자고 했던 것이 지금에 이르렀고, 현재 배관이 너무 낡아서 여기저기에 누수가 일어나고 더 이상 건물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 수녀원의 재건축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찬미와 감사와 간청을 드리는 교회의 목소리가 봉쇄 울타리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을 간청**합니다.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올림



“오, 제 사랑이신 예수님... 성소를, 마침내 제 성소를 찾았습니다.
제 성소는 사랑입니다!
저는 자모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에서)



비 올 때 새는 천장



낮은 배관



배관 단면



곰팡이 핀 천장



누수로 휘어진 천장 마감재



누수로 구멍 난 천장

- Tel : 010-9271-2555 / 010-4358-3356, 042)672-3351
- E-Mail : djcarmel@hanmail.net
- 하나은행 (재)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 가르멜수도원 915-910007-52705

* 신간 안내 *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 해설서 제4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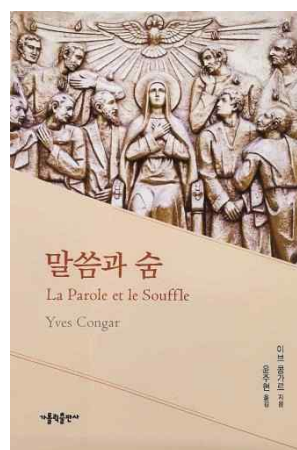
저 자: 월터 패렐

역 자: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

출판사: 수원 가톨릭대학 출판부



내 용: 본서는 성 토마스 사상의 전문가인 월터 패렐 신부가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 대중화를 위해 집필한 4권의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 작품을 통해 2천 년 교회 역사상 최고의 작품이지만, 난해한 용어와 문체로 쓰인 『신학대전』의 주요 주제들을 현대적인 상황에서 성찰하는 가운데 오늘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재가공해서 소개했다. 이를 위해 그는 쉬운 문체와 다양한 비유 그리고 현대에 쟁점이 되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신학대전』의 내용과 연결해 쉽게 제시했다. 약 3,000페이지에 이르는 4권으로 구성된 『신학대전 해설서』 시리즈는 이 제4권의 출간과 더불어 완역되었다. 본 시리즈는 성 토마스의 신학과 성경주해 그리고 영성 등의 주제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수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수가대 성 토마스 신학총서」 시리즈의 하나로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번역되었다. 윤주현 신부가 이 총서를 기획했으며, 번역은 윤주현 신부, 안소근 수녀, 조규홍 교수가 맡았다. 교회 역사상 최고의 신학 작품으로 평가받는 『신학대전』 전체를 쉽게 읽고자 하는 독자들은 『성 토마스의 신학대전 해설서 제1권~제4권』을 안내자로 삼기 바란다.



말씀과 숨

저 자: 이브 콩가르 추기경

역 자: 윤주현 신부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

내 용: 본서는 20세기 최고의 가톨릭 신학자 중의 한 분이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브 콩가르 추기경의 성령론 관련 저작인 『나는 성령을 믿나이다 1~3』을 보완하는 작품으로, 무엇보다 성령론과 그리스도론 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밝힌 주옥같은 책이다. 즉, 본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 역사의 주체인 삼위일체 하느님 가운데 성자와 성령 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성찰하고 제시했다. 콩가르 추기경은 1장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시된 성부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성자와 성령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파헤쳤다. 3장에서 콩가르 추기경은 인류 구원을 향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성자와 성령 간의 협력 관계를 제시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진리이신 성령에 대해 다뤘다. 5장에서는 성령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론 안에서 성령의 자리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성찰했으며, 7장에서는 동·서방 교회의 삼위일체 정식의 차이와 거기서 드러나는 성령의 위상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 추기경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한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성령의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성찰하고 묵상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 신간안내 *



유럽 중세교회의 향연 1,2

이영재¹⁾ 지음

혜안 펴냄

이 책은 ‘유럽 중세교회의 향연’이라는 책명에서도 드러나듯이, 중세 교회의 칙칙하고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교회에서의 흥겨운 잔치를 연상시킨다.

중세교회는 현재의 유럽이라 할 수 있는 그 방대한 지역을 하나의 조직체로 엮어내며 통합적인 단일 정신문화를 일구었다. 현대의 여러 민주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EU(유럽연합)를 가능케 한 토대가 된 중세 교회의 유산은 아직도 유럽 문화 속에 깊이 남아있다.

유럽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권위가 세속권력보다 높았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1권에서 저자는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개혁을 중심으로, 여러 재미있는 주제들-십자군들이 동방에서 가져온 예수님의 샌들, 십자가 등의 진품이 소장된 라테라노 대성당의 성지순례, 교황 편지 군대를 지휘한 여성 전사 마틸다 백작부인, 카놉사 성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무릎을 꿇은 군주 하인리히 4세, 추기경들의 교황선출 과정(콩클라베), 시노드 개최 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중세인들은 왜 그리도 높은 고딕 대성당을 세웠을까? 도시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올라간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나는 대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 또한 제 3회인 재속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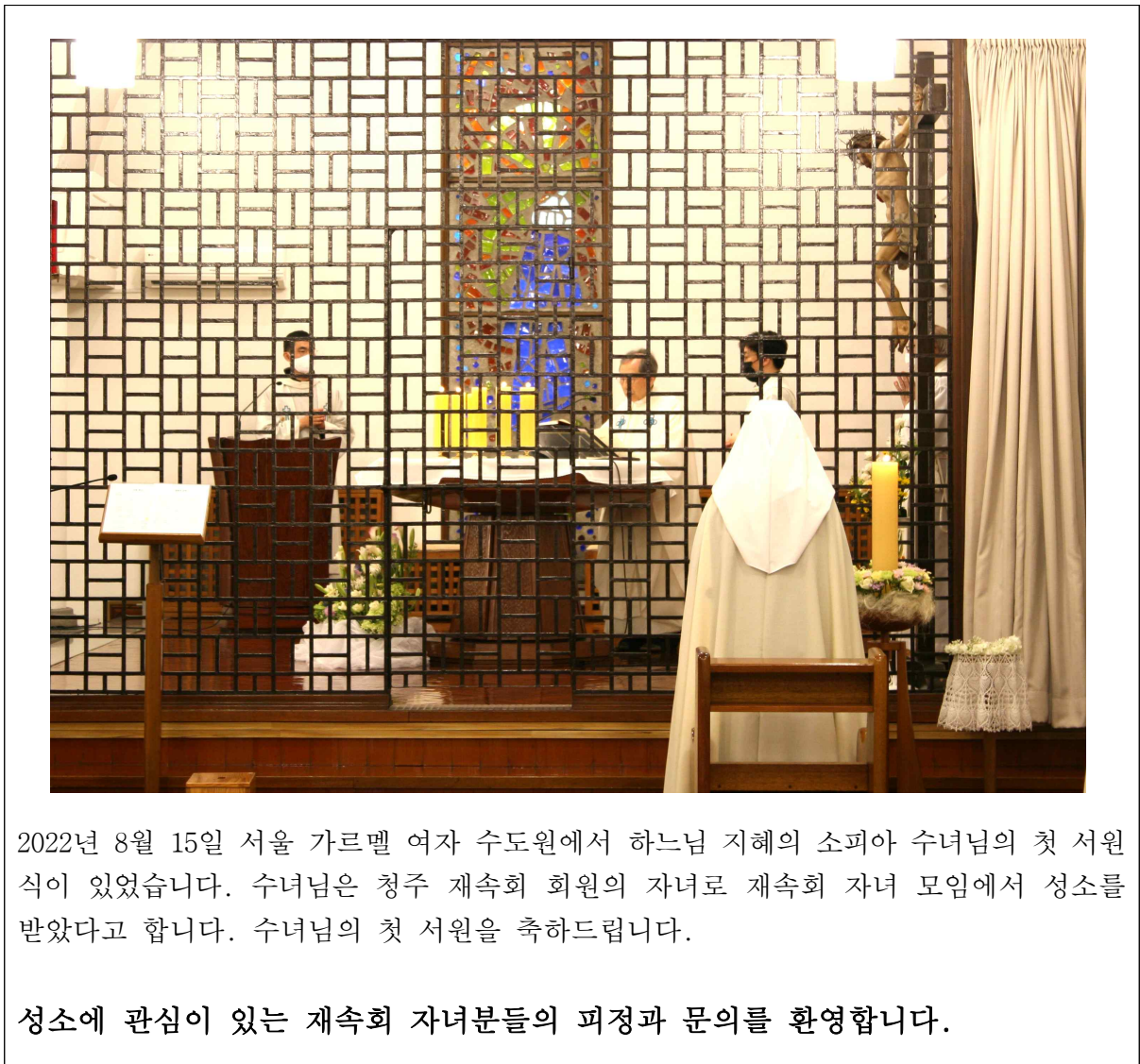
2권에서 독자들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거의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 백년 전쟁 발발, 임금상승, 인구감소... 그러나 아비뇽 교황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고전의 연구, 천문학, 음악 및 건축 양식의 발전도 일어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궁금한 우리에게 당시 14세기 역사를 통해 알아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우며, 특히 중세 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지니게 될 것이다.

1)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

하느님 지혜의 소피아 수녀님 첫 서원을 축하드립니다





결 실

“머지않아 전 당신 찬미하러 저 멀리 날아가렵니다.
해가 지지 않는 그날이 제 영혼에 여명을 드리울 때
그때 전 천사들의 수금으로 노래할 거예요.
영원한 오늘을!” (시 5,14)

- 아기에수와 성면의 성녀 데레사-